



수선사의 선문염송집편찬과 임제종 양기파의 어록

Compilation of Seonmunyeomsongjip() by Suseonsa() and Zen analects of Imje Yanggi-pa Sect()

저자 (Authors)	조명제 Cho, Myung-Je
출처 (Source)	역사와경계 94 , 2015.03, 1-46(46 pages) History & the Boundaries 94 , 2015.03, 1-46(46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경남사학회 Pusan-Kyungnam Historical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69916
APA Style	조명제 (2015). 수선사의 선문염송집편찬과 임제종 양기파의 어록. 역사와경계, 94, 1-4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10: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수선사의 『선문염송집』 편찬과 임제종 양기파의 어록

조 명 제*

목차

- I. 머리말
- II. 양기파 어록의 수용 양상
- III. 양기파의 어록이 『선문염송집』 편찬에 미친 영향
- IV. 맺음말

국문초록

임제종 양기파는 남송 이후 선종계를 주도하였던 종파이다. 양기파를 대표하는 대혜종고의 간화선이 고려 선종계에 수용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 선종계는 대혜만이 아니라 양기파의 공안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선문염송집』에 양기파의 어록이 폭넓게 활용되었으므로 양기파가 고려 선종계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가 잘 드러난다.

『선문염송집』에 인용된 양기파 선승들의 착어는 인용 횟수로 보면 죽암사구(144), 보령인용(128), 승승서공(112), 남화지병(105), 송원승악(105), 불안청원(102), 상방일익(99), 오조법연(49), 밀암함걸(45), 공수종인(45), 불감혜근(43), 목암법충(30), 백운수단(16), 한암혜승(12), 무용정전(6) 등의 순이다. 대혜종고와 원오극근의 착어를 포함하면 『선문염송집』에서 양기파의 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송대 종파 가운데 가장 크다. 또한 양기파의 어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기파의 착어는 逸書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다.

인용 횟수로 보면, 오조법연 - 원오극근 - 대혜종고로 이어지는 계보, 곧 양기파의 주류를 이루었던 선승들의 착어가 『염송집』에서 기본적으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보령인용, 상방일익, 승승서공 등 양기파의 주류가 아닌 선승들의 착어가

* 신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woongok@silla.ac.kr

『선문염송집』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대혜파가 남송말 이후의 선종계를 석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혜파의 착어가 적은 데 비해 호구파의 착어가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선사에서 후대와 같이 간화선 일변도로 양기파의 공안선을 수용하지 않았고, 아울러 양기파의 정통성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된다.

한편, 양기파 착어의 내용과 성격을 보면, 송대 공안 비평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염고보다 송고가 주류를 차지하지만, 다른 종파에 비해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또한 인용된 착어 가운데 상당과 같은 범어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특히, 착어의 내용은 전부 공안 비평에 대한 것이며, 간화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러한 특징은 대혜의 착어에서도 확인되지만, 양기파의 착어 전체를 분석해보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혜파, 호구파가 남송의 선종계를 석권하면서 간화선이 당시 남송의 선종계에서 성행되었지만, 이들 문파의 착어에서도 간화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수선사가 『선문염송집』을 편찬한 것은 간화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안 비평이라는 문자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경향은 공안 주석서가 13세기말까지 지속적으로 저술되고 유행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제어 『선문염송집』, 수선사, 임제종 양기파, 공안선, 문자선

I. 머리말

『禪門拈頌集』(이하 『염송집』)은 고종 13년(1226)에 혜심이 제자 眞訓 등과 함께 고칙 공안 1125칙에 여러 조사의 착어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편찬한 공안집이다.¹⁾ 그러나 강화도로 천도할 때에 초조본이 소실되었으므로 고종 30년(1243)에 수선사 3세인 小融夢如가 고칙 347칙을 증보하여 다시 편찬하였다.²⁾

『염송집』은 수선사에서 독자적으로 편찬된 공안집이며, 수선사 전체

- 1) 慧謙, 『禪門拈頌集序』 『한국불교전서』(이하 『한불전』) 5(서울: 동국대 출판부, 1983), 1쪽.
- 2) 鄭晏, 『增補拈頌跋』 『한불전』 5, 923쪽. 그런데 현존하는 『염송집』은 1463칙이므로 증보된 칙수 1472칙과 맞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내용을 증보하였는가를 알 수 없다. 다만, 전체의 체재와 구성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원에서 공안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헌이다. 또한 『염송집』에 수록된 고척 공안과 착어는 모두 중국 문헌에서 인용된 것이며, 특히宋代 선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송대 선적은 결국 송대 선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문헌이다. 그러므로 『염송집』은 수선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12~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송대 선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였는지를 폭넓게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헌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염송집』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는 『염송집』 전체의 체재나 구성에 대해 목차를 통해 접근하거나 부수적인 문제에 그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⁴⁾ 이러한 한계는 『염송집』이 기본적으로 송대 선적을 토대로 편찬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송대 선종사의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⁵⁾

-
- 3) 종래 고려불교사 연구에서 무신란을 기점으로 교종에서 선종으로 전환된 것이 강조되면서, 특히 수선사를 중심으로 한 선종의 동향이 주목되었다. 그 결과 13세기 선종사의 흐름을 수선사 중심으로만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선사의 등장을 결사운동과 결부시켜 강조하면서 12세기까지의 선종사 흐름과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수선사의 선이 송대 선의 수용과 이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수선사가 수용한 공안선의 흐름이란 12세기 이래 송대 선이 수용되던 흐름을 기반으로 하며,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 인식은 조명제, 「고려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 『역사와 경계』 44(2002)에 제시된 바가 있다.
- 4)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보조사상』 34(2010), 48쪽. 한편, 椎名宏雄, 「『禪門拈頌集』の資料價値」 『印度學佛教學研究』 51-1(2002)에서 송원관 선적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염송집』의 자료 가치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주목된다. 다만 그의 연구는 『염송집』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 5) 『염송집』은 송고와 같은 시적 표현이 많아 그 자체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선입관과 달리 『염송집』에는 송고 이외에도 상당, 시중, 보설 등 다양한 법어가 많이 인용되어 있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은 송대 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송대 선종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연구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혜심 등이 송대 선승들의 착어에 대한 이해와 입장이 어떠한가를 『염송집』에 직접 표현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용 분석에 이종의 난관이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수선사가 『염송집』을 편찬할 때에 저본으로 활용한 송대 선적이 무엇이며, 『염송집』에 수록된 착어의 내용을 통해 사상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⁶⁾ 이 글에서는 송대 선종을 대표하는 임제종 양기파의 어록이 『염송집』의 편찬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인용된 착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염송집』의 문헌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⁷⁾ 양기파의 전반적인 동향이나 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염송집』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를 통해 고려 선종사의 흐름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양기파 어록의 수용 양상

송대의 선은 처음 운문종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북송 말에 이르러 운문종이 쇠퇴하면서 임제종이 점차 부각되었다. 眞宗(998~1022), 仁宗(1023~1063) 무렵에 임제종에서 石霜楚圓(980~1040)의 제자 중에 黃龍慧南(1002~1069)과 楊岐方會(992~1049)가 등장하여, 각각 그 문하에 많은 선승을 배출하여 황룡파와 양기파라는 양대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 먼저 황룡파가 선종계를 주도하였고, 이어 남송 대에 이르러 양기파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양기파는 楊岐方會 - 白雲守端(1025~1072) - 五祖法演(?~1104)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법연의 문하에 佛果克勤(圓悟克勤, 1063~1135), 佛鑑

6) 조명제, 앞의 글(2010) ;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 『불교학보』 62(2012) ;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宏智錄』』 『불교학보』 63(2012) ;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한국사상사학』 42(2012) ;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雲門宗의 어록』 『역사와 경계』 90(2014a) ;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임제종 황룡파의 어록』 『불교학보』 68(2014b) ;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대혜종고의 저작』 『역사와 경계』 92(2014c) ;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원오극근의 저작』 『한국불교학』 73(2015).

7) 양기파를 대표하는 대혜종고와 원오극근에 대한 분석은 조명제, 위의 글(2014c, 2015)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慧懃(1059~1117), 佛眼清遠(1067~1120) 등 三佛이라 불리는 선승들이 배출되어 활약하였다. 이 가운데 원오의 법을 이은 대혜종고(1089~1163)가 간화선을 완성하였고, 이들의 법맥을 잇는 선승들이 선종계를 석권하였다.

한편 불감혜근의 문하에 南華知昺(생몰년 미상), 何山守珣(佛燈守珣, 1079~1134) 등이 활약하였다. 불안청원의 문하에는 竹庵土珪(1083~1146), 牧庵法忠(1084~1149) 등이 배출되었다. 한편 양기방회의 문하에는 保寧仁勇(생몰년 미상), 上方日益(생몰년 미상)⁸⁾ 등이 배출되었으며, 백운의 문하에도 崇勝瑞珙, 雲蓋智本 등이 활약하였다.

대혜의 문하에는 拙庵德光(1121~1203), 懶庵鼎需(1092~1153), 開善道謙(생몰년 미상), 曉瑩仲溫(1116~?), 無用淨全(1137~1207), 空叟宗印(생몰년 미상) 등이 배출되는 등 대혜파가 융성하였다. 한편 원오의 문하에는 대혜와 함께 虎丘紹隆(1077~1136)이 출현하여 호구파가 발전하게 되었다.⁹⁾ 호구파에는 密庵咸傑(1118~1186)이 활약하면서 많은 선승이 배출되었다. 특히 松源崇嶽(1132~1202), 破庵祖全(1136~1211)이 밀암의 문하를 대표하는 선승이며, 이들은 각각 송원파, 파암파라는 문파를 형성하였다.¹⁰⁾

남송말에서 원초에 송원파의 蘭溪道隆(1213~1278), 파암파의 兀菴普寧(1197~1276) 등은 일본에 건너가 송대 선을 전하였다.¹¹⁾ 가마쿠라 중기에서 남북조기에 걸쳐 남송 및 원으로부터 일본에 전해진 선종의 계

8) 그는 保寧仁勇의 법을 이은 선승이며, 湖州 海會院과 上方院에 주석하였기 때문에 上方日益이라 불렸다.『續傳燈錄』 권21, pp. 606~607). 『염송집』에 雪溪益이라고 표기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삼계는 일익이 머물렀던 절강성의 지명이므로 동일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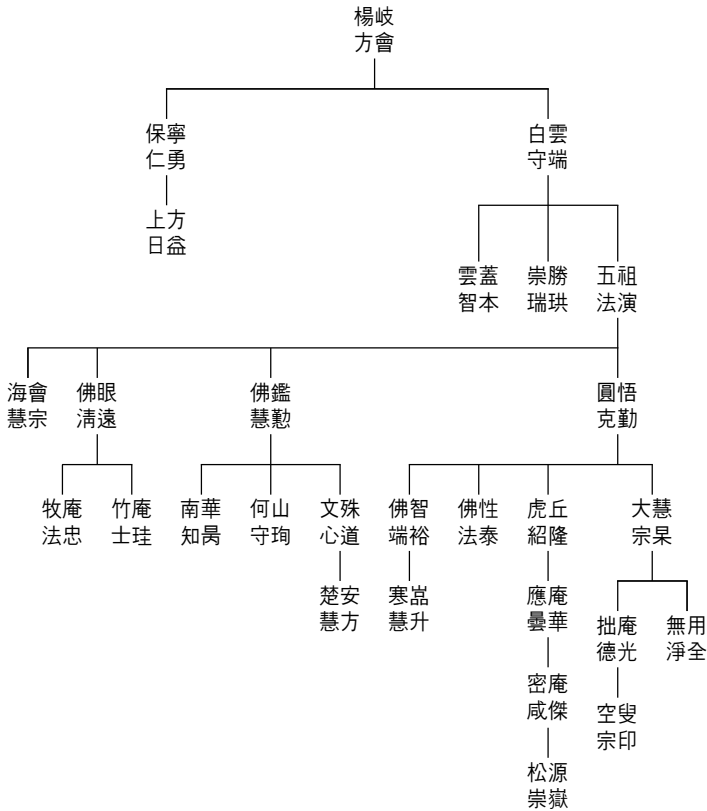
9) 石井修道, 「虎丘紹隆と大慧宗杲」 『佛教史學研究』 25-1(1982).

10) 石井修道, 「松源崇嶽の人と思想」 『印度學佛教學研究』 54-1(2005).

11) 13세기 중엽~14세기는 일본사에서 도래승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도래승이 문화,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근래의 대표적인 성과로 村井章介, 「渡來僧の世紀」 『東アジア往還』(도쿄: 朝日新聞社, 1995), 榎本涉, 「日中・日朝僧侶往來年表(1127-1250)」 『8-1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上)』(村井章介 編, 日本學術振興會 平成12年度~平成1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 研究成果報告書, 2004 ; 『南宋・元代日中渡航僧傳記集成』(도쿄: 勉誠出版, 2013) 등 참조).

통은 일본 선종의 「24流46傳」이라 일컬어진다. 24류는 일본승이 중국에 들어가 전해온 선종만이 아니라 중국 선승이 일본에 도래하여 전한 예가 많다. 이러한 도래승은 양기와 중에서도 남송 초기의 虎丘派에 한정되어 있다. 남송 말기에서 원에 걸쳐 대혜파가 융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혜파 출신의 도래승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¹²⁾

〈임제종 양기파의 법계도〉



12) 「24류46전」은 일본에 송원대 선을 전하였던 선승이 46인이고, 그 가운데 24류가 일본중세의 선림에 문파를 형성하였던 것을 이른다. 24류는 계통적으로 임제종 황룡파가 예이사이(榮西) 일파뿐이고, 조동종이 도겐(道元) 등 3파에 그친 것에 비해 나머지는 모두 양기파에 속한다. (佐藤秀孝, 「中世鎌倉の渡來僧」 『東アジアのなかの建長寺』(村井章介 編, 도쿄: 勉誠出版, 2014) 참조.

그러면 현존하는 양기파의 어록이 언제 편찬되고, 간행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고려 선종계에 수용된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양기파의 초기 선승들의 어록은 『慈明四家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慈明楚圓(石霜楚圓) - 양기방회 - 백운수단 - 오조법연으로 이어지는 4가의 어록을 집성한 총서이다.¹³⁾ 이 총서의 편찬은 불안청원의 제자인 正堂明辯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紹興 23년(1153) 무렵 편집되어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총서는 황룡파의 『黃龍四家錄』¹⁴⁾ 편찬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졌다.¹⁵⁾

이어 紹興 8년~14년(1138~44) 무렵 鼓山の 曠藏主(僧挺守曠)가 당말에서 북송에 이르는 선승의 어록을 20家 22권의 『古尊宿語要』로 편집하여 간행하였다.¹⁶⁾ 간행 동기는 스승과 제자인 죽암사규, 승정수색 두 사람이 鼓山開祖 神晷의 어록을 비롯하여 세간에 유포되지 않은 어록을 집성하여 세상에 내놓기 위한 것이었다.¹⁷⁾ 이후 淳熙 5년(1178)에 鼓山の 小菴德最가 瑯琊, 白雲 2家の 어록을 더해 22가로 하고, 각 선승의 小傳을 각 권의 첫머리에 더해 간행하였다. 또 嘉熙 2년(1238)에 鼓山の 晦室師明이 20家 4策에 새롭게 편집한 80家の 『續刊古尊宿語要』 6策을 합쳐 100가 10책으로 간행하였다. 正集 20가가 전집인 것에 비해 續集 80

13) 五代에서 송대에 걸쳐 5가 7종이라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파를 형성하는 4대 조사의 어록을 모은 사가록이 계속해서 출현하였다. 德山, 馬祖, 黃龍, 慈明 등의 이름을 붙인 사가록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馬祖四家錄』은 황룡혜남이 元豐 8년(1085) 무렵에 상하 2권으로 편집해서 간행하였다.

14) 『黃龍四家錄』(4권)은 黃龍慧南 - 晦堂祖心 - 死心悟新 - 超宗慧方으로 이어지는 4가의 어록을 집성한 것이며, 紹興 11년(1141)에 초종과 법형제에 해당하는 寂星慧泉에 의해 편집되었다.

15) 椎名宏雄, 「宋版『慈明四家錄』とその周邊」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13(1982).

16) 柳田聖山, 「古尊宿語錄考」 『花園大學研究紀要』 2(1971).

柳田聖山, 「宋版古尊宿語錄調查報告」 『禪文化研究所研究紀要』 4(1972).

椎名宏雄, 「『古尊宿語錄』 正續諸本の系統」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13(1981).

17) 전체 구성은 『南泉普願語要』, 『投子大同語錄』, 『陸州道蹤語錄』, 『趙州從諗語錄』(3권), 『南院慧顛語錄』, 『首山省念語錄』, 『葉縣歸省語錄』, 『神鼎洪諱語錄』, 『承天智嵩語錄』, 『石門蘊聰語錄』, 『法華全舉語要』, 『大愚守芝語錄』, 『雲峯文悅語錄』, 『楊岐方會語錄』, 『道吾悟眞語錄』, 『大隨法眞語要』, 『子湖利蹤語錄』, 『鼓山神晏語錄』, 『洞山守初語錄』, 『智門光祚語錄』 등으로 이루어졌다.

가는 초록이다. 또 양기방회의 어록만이 전후 양집에 포함되어 있다.

이어 咸淳 3년(1267)에 覺心居士가 22가에 佛眼, 眞淨, 雲門 등 3가를 더해 重刊하였다. 이때 阿育王山廣利寺의 物初大觀이 쓴 서문을 붙였다. 이후 25가에 『黃梅東山錄』, 『臨濟錄』, 『東林和尚雲門庵主頌』 등이 더해져 간행되었고, 더욱이 9가의 어록이 더해져 증보 개편된 36가 48권의 『古尊宿語錄』이 永樂 2년(1404)에 淨戒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이 大明南藏에 입장되었고, 영락 11년(1413)에 대장경의 일부로서 간행되었다.

이러한 총서에 포함된 양기파의 어록이 일부 남아 있으며, 그 외에 개인 어록이 간행되었다. 보령인용의 어록인 『保寧勇禪師語錄』(1권)이 元豐 원년(1078)에 楊傑이 쓴 서문이 있으므로 그 무렵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죽암사규의 저작은 대혜종고와 서로 唱和한 『東林和尚雲門庵主頌古』 1권이 있다.¹⁸⁾ 밀암함걸의 어록인 『密庵和尚語錄』(2권)은 문하의 崇嶽, 了悟 등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淳熙 15년(1188)에 張鉉가 쓴 서문이 있으므로 이 무렵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권에는 『密庵和尚住衢州西烏巨山乾明禪院語錄』, 『衢州大中祥符禪寺語錄』, 『建康府蔣山太平興國禪寺語錄』, 『常州褒忠顯報華藏禪寺語錄』, 『臨安府徑山興聖萬壽禪寺語錄』, 『明州太白名山天童景德禪寺語錄』 등이, 하권에는 小參, 普說頌贊, 偈頌, 法語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송원승악의 어록인 『松源和尚語錄』(2권)은 善開 등에 의해 편찬되어 嘉泰 3년(1203)에 간행되었다. 상권에 『平江府陽山澂照禪院語錄』, 『江陰軍君山報恩光孝禪寺語錄』, 『無爲軍冶父山實際禪院語錄』, 『饒州薦福禪院語錄』, 『明州香山智度禪院語錄』, 『平江府虎口山雲巖禪院語錄』 등이, 하권에 『臨安府景德靈隱禪寺語錄』, 『開山顯親報慈禪寺語錄』, 秉拂, 普說, 法語, 頌古, 贊佛祖, 偈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기파의 어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뒤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염송집』에 인용된 양기파의 착어는 逸書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송승서공, 상방일익, 불

18) 『竹庵珪和尚語要』 1권이 『고존숙어록』에 남아 있지만, 본래의 어록이 아니라 간략본이다.

감혜근, 남화지병, 목암법충, 무용정진, 공수종인 등의 착어는 분량도 적지 않기 때문에 송대 양기파의 동향과 사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면 양기파의 어록이 고려 선종계에 언제,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이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현존하는 판본이나 간행 기록도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단편적인 기록을 종합해서 양기파의 어록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竹庵士珪의 『竹菴老禪和尚語錄』, 「有宋溫州龍翔禪院珪公禪師塔銘」이 낙장으로 전해지는데, 12세기말에서 13세기 중반에 고려에서 翻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이러한 사실로 보아 적어도 죽암사구의 어록이 12세기말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죽암은 대혜와 함께 『東林和尚雲門庵主頌古』, 『禪林寶訓』 등을 저술하였고, 대혜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12세기말에 이들의 선적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13년에 수선사에서 대혜의 『正法眼藏』이 간행되었고,²⁰⁾ 지눌, 혜심, 혜설의 저술에서 대혜의 언구가 많이 인용되어 있어 수선사를 중심으로 대혜의 저작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²¹⁾

대혜의 저작은 수선사만이 아니라 선종계 일반에서도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昌福寺 談禪法會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복사는 熙宗 7년(1211)에 최충헌에 의해 개경에 새로 건립된 선종 사찰이다. 高宗 2년(1215)에 창복사에서 담선법회가 개최되었는데, 弃公, 眞公 등이 주도하여 『육조단경』과 함께 『徑山語錄』, 곧 『대혜어록』을 강의하였다.²²⁾ 이러한 사례는 수선사 이외의 선문에서 『대혜어록』에 밝은

19)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45쪽.

20)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서울: 일조각, 1991), 62쪽, 조명제,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서울: 해안출판사, 2004), 109쪽 및 182쪽 참조.

21) 조명제, 앞의 글(2014c), 42~43쪽. 대혜의 저작이 고려불교계에 간행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일찍부터 제시되었다. (稻葉岩吉, 「高麗宣光版禪林寶訓書後」 『靑丘學叢』 8(1932), 大屋徳城, 「高麗朝の舊槩」(1941) ; 『佛敎史の諸問題-大屋徳城著作選集第六卷-』(도쿄: 國書刊行會, 1988), 138~140쪽, 黒田亮, 「宋代における大慧書の開版及び其の朝鮮刊本」 『朝鮮舊書考』(1940), 157~158쪽). 한편, 『大慧宗門武庫』가 『선문보장록』 卷下(『한불전』 6, 483b)에 인용되어 있으므로 『宗門武庫』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선승이 존재하였고, 결사를 구성하여 성황을 보일 만큼 『대혜어록』에 대한 사상적인 수요가 꽤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²³⁾

한편, 13세기 후반에 선종계를 주도한 일연이 관심을 가진 선적을 통해서도 양기파의 선적이 수용된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연은 四明曇秀의 『人天寶鑑』(1230년 간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²⁴⁾ 『인천보감』은 남송 대에 성행한 일화집이다. 일화집은 주로 선문의 일화를 수록한 것이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다. 그런데 남송 대의 일화집은 주로 대혜파의 선승들이 저술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혜의 『宗門武庫』(1186)를 비롯하여 仲溫曉瑩의 『羅湖野錄』(1155), 『雲臥紀談』(1179경), 東吳淨善의 『禪林寶訓』(1180경), 古月道融의 『叢林盛事』(1197)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일연이 『인천보감』을 비롯하여 다양한 선적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고려하면 대혜파의 다양한 일화집도 고려 선종계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이러한 일화집에 대한 관심은 고려 선종계에서 양기파의 선에 대한 동향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양기파의 어록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송의 상인들을 통해 도입되었다. 고려의 선종은 송대 선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고려 시기에는 거란, 금, 몽골 등 북방민족이 잇달아 대두하면서 그들과의 외교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서 고려는 송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거나 직접적인 교류를 하기가 곤란하였다.²⁵⁾ 더욱이 무신란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고려의 선승들이 송에 들어가 직접적인 교류를 시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의 상인은 고려와 송의 불교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 선종은 이들을 통해 송의 선적을 구입하였다.²⁶⁾ 12세기 이래 고려에서 수용하고 이해한 송대 선은

22) 李奎報, 「昌福寺談禪勝」 『東國李相國集』 권25(『韓國文集叢刊』 1, 550쪽), “弁公主盟 眞公副焉 說六祖壇經徑山語錄 每夜談空 率以爲常”

23) 조명제, 앞의 글(2014c), 46쪽.

24) 조명제, 「一然의 선사상과 宋의 禪籍」 『보조사상』 33(2010).

25) 김상기, 『고려시대사』(서울: 동국문화사, 1961), 181~196쪽.

26) 예를 들어 12세기에 탄연이 宋商人 方景仁을 통해 송의 임제종 황룡파의 無示介講에게 서신을 보내어 인가를 받았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송상이 송

선적이라는 문헌을 통해 전해진 것이었다.²⁷⁾

Ⅲ. 양기파 어록이 『선문염송집』 편찬에 미친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선종계에 양기파의 선적이 수용되었던 양상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염송집』은 양기파의 어록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양기파가 고려 선종계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양기파의 어록이 『염송집』에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뒤의 <표>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착어의 인용 횟수가 많은 선승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죽암사규(144), 보령인용(128), 승승서공(112), 남화지병(105), 송원송약(105), 불안청원(102), 상방일익(99), 오조법연(49), 밀암함결(45), 공수종인(45), 불감혜근(43), 목암법총(30), 백운수단(16), 한암혜승(12), 무용정전(6) 등의 순이다.²⁸⁾ 대혜종고, 원오극근의 착어를 포함하면 『염송집』에서 양기파의 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선사가 『염송집』을 편찬할 무렵에 송대 선종계에서 양기파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양상이다.

과 고려불교의 교류에 매개 역할을 하였다.(조명제, 앞의 책, 92쪽 및 이진한,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서울: 경인문화사, 2011), 173~177쪽). 송상의 역할은 서적 수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송대 선종계의 정보를 풍부하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양상은 송과 일본을 왕래하던 송상들이 송대 선종의 상황을 전해주었고, 이들은 당시 성행하였던 선종의 신자로서 국외에도 선전하거나 정보를 전해주었던 사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榎本涉,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도쿄: 講談社, 2010) 134~135쪽).

27) 고려 의종 대에 송상이 대거 고려로 들어왔으며, 『宋史』 高麗傳에 의하면 고려 개경에 체류하는 송상의 출신지가 복건성이 많다는 기록이 주목된다.(김상기, 앞의 책, 194~195쪽.) 현존 송판 선적은 북송말 남송초에 간행된 것이 가장 많으며, 복건성은 송대에 목판인쇄가 활발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 출신의 송상이 서적을 구입하고 고려에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8) 이 글에서는 인용 횟수가 5칙 이상인 선승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용 횟수로 보면, 오조법연 - 원오극근 - 대혜종교로 이어지는 양기과의 주류를 이루었던 선승들의 착어가 『염송집』에서 기본적으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연의 문하에서 원오와 함께 삼불로 불린 불안정원, 불감혜근이나 그들의 문하인 죽암사규, 남화지병, 목암법충 등의 착어가 많은 것은 양기과의 주요한 선승들의 어록이 고려 선종계에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수선사가 양기과의 법맥을 의식하거나 정통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기방회의 착어는 『염송집』의 16, 357칙에 2회 인용되어 있을 정도로 비중이 낮다. 더욱이 양기과의 주류가 아닌 선승들의 착어가 『염송집』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보령인용, 상방일익, 승승서공 등과 같이 오조법연의 계열과 관련이 없는 선승들의 착어가 대단히 많이 수록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대혜종교가 간화선을 완성한 이후에 대혜파가 남송말 이후의 선종계를 석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혜파의 착어가 적고, 호구과의 착어가 오히려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밀암함걸, 송원승악 등의 착어는 대혜파의 착어에 비해 인용 횟수가 훨씬 많다. 나아가 수선사가 호구과의 어록을 다양하게 입수한 것은 『염송집』을 편찬하기 직전이므로 남송 선종계의 최신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반영한다.²⁹⁾ 또한 『염송집』에 대혜파와 함께 호구과를 비롯한 양기과의 다양한 어록이 수록되었던 것은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송대 선에 대한 이해가 간화선 일변도가 아니라 대단히 폭넓게 이루어졌던 경향을 보여준다.³⁰⁾

다음으로 착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1>에서 보령 인용의 착어는 송고 110회, 상당 20회, 거운 3회 등으로 송고가 압도적으로 많다. <표2>에서 백운수단의 착어는 송고 7회, 염고 6회 운 3회, 시중 2회 등이다. <표3>에서 오조법연의 착어는 상당 36회, 소참 3회,

29) 예를 들어 1203년에 간행되었던 송원승악의 어록이 『염송집』에 꽤 비중 있게 인용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30) 호구과가 일본종세의 선종계에 미친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고려 선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거의 없다. 한국과 일본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불교 사상, 문화의 토대와 흐름이 다른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송대 선의 수용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고 7회, 거운 3회, 염고 3회 등의 순으로 상당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표4>에서 승승서공의 착어는 송고 112회이며, 다른 착어가 전혀 없다. <표5>에서 상방일익의 착어는 송고 41회, 염고 15회, 상당 12회, 시중, 소참이 각 1회, 거운 6회, 대운, 별운이 각 1회 인용되어 있다. <표6>에서 불안청원의 착어는 송고 61회, 상당 37회, 소참 3회, 보설 1회, 대운 4회, 운 4회, 염고 1회 등의 순으로 인용되어 있는데, 송고와 상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7>에서 불감혜근의 착어는 송고 37회, 상당 8회, 소참 1회, 운 4회 등이다.

<표8>에서 죽암사구의 착어는 송고 102회, 상당 25회, 소참 9회, 보설 2회, 운 19회, 염고 12회 등이다. 죽암의 송고는 양기파의 종지를 정하기 위해 대혜종교와 함께 고척 110칙에 대해 각자 송을 붙여 1133년에 저술한 『東林和尚雲門庵主頌古』에서 인용하였다. 아울러 죽암의 송고는 대부분 대혜의 송고와 함께 세트론으로 인용되어 있으므로 수선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편찬한 송고집을 거의 그대로 전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³¹⁾

<표9>에서 남화지병의 착어는 염고 54회, 송고 40회, 상당 17회, 거운 3회, 소참 2회 등의 순이다. 다른 선승과 달리 염고의 비중이 크지만, 송고와 상당도 많다. <표10>에서 목암법충의 착어는 송고 15회, 염고 9회, 상당 7회, 거운 1회 등이다. <표11>에서 무용정전의 착어는 송고 4회, 상당 2회이다. <표12>에서 한암혜승의 착어는 상당 12회, 송고 10회, 보설 4회, 염고 1회이다. <표13>에서 공수종인의 착어는 상당 12회, 운 23회, 염고 3회, 송고 7회이다.

<표14>에서 밀암함걸의 착어는 상당 26회, 송고 8회, 운 10회 등으로 상당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표15>에서 송원송약의 착어는 상당 79회, 송고 27회, 염고 2회, 병불 1회 등이다. 밀암과 송원의 경우는 다른 선승들에 비해 인용된 착어 중에 상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 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양기파의 착어는 송대 공안 비평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염고보다

31) 『염송집』에 대혜의 송고는 118회 인용되었는데, 죽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東林和尚雲門庵主頌古』에서 105수를 인용할 만큼 인용빈도가 대단히 높다.(조명제, 앞의 논문(2014c), 54쪽).

송고가 주류를 차지하지만, 다른 종파에 비해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주지하듯이 송고는 운문종의 설두중현이 『송고백칙』을 제시한 후에 원오극근이 『벽암록』을 통해 그 정수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양기과의 종세가 두드러지는 남송 대에는 공안 비평이 염고보다 송고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그러한 경향이 『염송집』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둘째, 양기과의 착어 가운데 상당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흔히 『염송집』을 제목 때문에 송고와 염고를 집성한 공안집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염송집』에는 상당, 보설, 시중 등과 같은 범어에서 인용된 착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착어는 『염송집』 전체에서 다른 종파에 비해 양기과의 비중이 가장 크다. 또한 이러한 착어는 대혜종고와 원오극근의 착어에서 볼 수 있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원문을 그대로 전제한다든지, 대단히 자세하게 인용되어 있다.

셋째, 착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공안 비평에 대한 것이며, 간화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혜의 착어이다. 본래 『대혜어록』에 상당, 보설 등의 원문에는 간화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송집』에 인용된 대혜의 착어에서 간화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염송집』에 무려 12칙에 걸쳐 인용되어 있는 「秦國太夫人請普說」이다.

이 보설은 대단히 긴 내용인데, 진국태부인이 대혜의 지도를 받아 大悟한 과정이 묘사되어 있고, ‘無字’ 화두의 참구가 중시되고 있다.³²⁾ 그런데 『염송집』에는 ‘무자’ 화두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인용되지 않으며, 단지 대혜의 설법에서 인용되고 있는 공안들을 하나씩 나누어 趙州 臺山 老婆(412칙)를 비롯한 본칙에 대혜의 착어로서 12회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염송집』에 간화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단 하나도

32) 石井修道, 「大慧宗杲の看話禪と「磨博作鏡」の話」 『駒澤大學禪研究所年譜』 9 (1999), 72~76쪽 참조. 磨博作鏡과 관련된 공안은 『염송집』 121칙에 수록되어 있지만 관련 착어가 별로 많지 않다. 이 공안은 馬祖道一의 깨달음과 관련된 일화로 유명한 것인데, 『염송집』에는 南嶽懷讓이 공안의 주인공인 121칙과 馬祖道一이 공안의 주인공인 156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둘 다 착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므로 특별히 중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언급되지 않는다.³³⁾

이러한 경향은 양기파의 착어 전체를 분석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대혜파와 호구파의 착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다르지 않다.³⁴⁾ 이들 문파가 남송의 선종계를 식권하면서 간화선이 당시 남송의 선종계에서 성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파의 착어에서도 간화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³⁵⁾ 나아가 양기파의 착어뿐만 아니라 『염송집』에 수록된 착어 전체를 분석해도 마찬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염송집』은 간화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안 비평이라는 문자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³⁶⁾

33) 조명제, 앞의 논문(2014c), 48~50쪽. 이 보설 이외에도 「禮侍者斷七請普說」이 『염송집』 1331칙에 일부 인용되었지만, 정작 대혜가 스승 원오극근의 문하에서 유구무구 공안을 통해 깨닫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상당, 보설, 시중, 법어 등에서 인용된 대혜의 착어 가운데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다.

34) 예를 들어 송원파의 시조인 松源崇嶽은 대혜의 竹篋 공안으로 학인을 가르칠 만큼 간화선을 중시하였다. 이 글에서 서술할 여유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다른 호구파의 선승들의 경우도 대혜파와 마찬가지로 간화선을 중시하였다. 다만, 송원은 祇管打坐의 좌선을 행하기도 하였다. 조동종의 天童如淨이 송원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송원의 법손인 蘭溪道隆이 남긴 遺誡 5조의 제1조에 송원파의 승당 규칙에 오로지 좌선을 행한다고 하였다. 난계는 또 「建長寺法語規則」에 좌선 규칙을 남기고 있다.(鏡島元隆, 『天童如淨禪師の研究』(도쿄: 春秋社, 1983), 71~73쪽).

35) 예를 들어 無門慧開(1183~1260)가 ‘무자’ 화두 중심의 공안집으로 편찬한 『無門關』(1229)이 수선사 단계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것은 호구파의 어록을 다양하게 입수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글에서 거론할 여유가 없지만, 수선사에서 송대 선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 선종계에서 간화선 수행과 관련하여 『무문관』이 압도적인 위상을 가진 것에 비해 고려 선종계에서는 14세기에 『몽산법어』가 그러한 위상을 갖고 있다.(조명제, 「고려후기 『蒙山法語』의 수용과 간화선의 전개」 『보조사상』 12(1999) 참조).

36) 현재 학계에서는 공안선, 간화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가와 타카시의 학설에 따라 공안선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 송대의 선은 수행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公案禪의 시대이며, 그 방법은 크게 文字禪과 看話禪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선은 공안의 비평과 재해석을 통해 禪理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간화선은 특정한 공안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그 한계점에서 마음의 激發, 大破를 통해 극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小川隆, 『續・語錄のことは『碧巖錄』と

이러한 경향은 수선사에서 『벽암록』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벽암록』은 문자선을 대표하는 작품이지만, 그 논술 가운데 이미 과거의 공안에 대한 해석, 논평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렬한 실천적인 지향을 볼 수 있다. 원오는 착어와 평창을 통해 신랄한 비평을 더하였고, 더욱이 공안 비평이라는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無事禪에 빠진 송대 선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다.³⁷⁾ 그것은 결국 무사선에 반대하면서 학인에게 철저하게 大悟할 것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다만 그 대오의 체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를 『벽암록』에서 하나의 명확한 초점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간화선에 귀결되는 요소가 원오의 평창에 싹트고 있었다. 따라서 『벽암록』은 북송의 문자선을 집대성하면서, 그것을 간화선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연 문헌이었다. 다시 말해 『벽암록』은 문자선의 도달점이면서 동시에 간화선의 기점이기도 한 문헌이었다.³⁸⁾

그런데 『염송집』에 원오의 착어로 인용된 것은 대부분 염고와 송고였고, 『벽암록』에서 제시된 원오의 평창이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³⁹⁾ 그러므로 『염송집』에는 무사선의 폐단을 인식하면서 간화선으로 나아가던 송대 선의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드러나지 않는다.⁴⁰⁾ 이러한 경향은 수선사에서 편찬된 『禪門三家拈頌集』, 『禪門拈頌說話』 등을 통해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13세기 후반까지 일연을 비롯한 고려 선종에서 공안 비평에 대한 이해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연의 저술이 남아 있지 않지만, 『조정사원』(30권), 『선문염송

宋代の禪』(京都: (財)禪文化研究所, 2010) 참조. 한편, 문자선이라는 용어는 覺範惠洪의 『石門文字禪』에서 연유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周裕錫, 『禪宗語言』(浙江人民出版社, 1999) ; 『文字禪與宋代詩學』(高等教育出版社, 1998)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37) 土屋太祐, 「北宋期禪宗の無事禪批判と圓悟克勤」 『東洋文化』 83(2003) ; 「公案禪の成立に關する試論 -北宋臨濟宗の思想史-」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 18(2007) 참조.

38) 小川隆, 앞의 책, (2011), 第二章 第五節 참조.

39) 조명제, 앞의 논문(2015) 참조.

40) 조명제, 「혜심외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염송집』」 『보조사상』 42(2014) 참조.

사원』(30권)이라는 방대한 저작은 공안 비평과 관련된 훈고서이다. 한편 일연의 제자인 훈구도 『증편염송사원』(30권)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문헌이 남아 있지 않지만, 적어도 13세기말까지 문자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지속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3세기 고려 선종계에 문자선의 수용과 이해에 초점을 맞춘 공안집, 공안 주석서가 지속적으로 저술되고 간행되었다. 이러한 문자선의 성행은 바꾸어 말한다면 간화선 중심의 수행방법론이 고려 선종계에서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이러한 문제는 고려 선종이 송의 선종계와 직접 교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된다. 주지하듯이 선의 이해와 실천은 문답이든 화두 참구이든 기본적으로 面授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고려 선종계는 간화선이라는 새로운 수행법을 송대 선종계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 전수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문헌을 통한 간접적인 이해에 그쳤다. 다시 말해 선의 수행이나 깨달음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스승과 제자와의 문답이나 인가 과정이 결여되었던 것은 당연히 송대 선의 수용과 이해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눌, 혜심과 같은 특정 인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간화선의 수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물에 대한 연구는 개인 어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편찬한 선적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12,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송대 선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였는가를 재검토하면서 수선사의 간화선 수용과 이해 문제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임제종 양기파는 남송의 선종을 주도한 종파이며, 원오극근을 거쳐 대혜종고에 의해 간화선이 완성되면서 사상계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양기파는 후대의 범통론적인 시각과 달리 다양한 문파의 흐름이 존

재한다. 특히 원오의 문하에 대해파와 함께 호구과가 남송 선종계에서 많은 선승을 배출하면서 발전하였다. 호구과는 密庵咸傑의 문하에서 다시 송원파, 파암파라는 문파를 형성하였으며, 남송말에서 원초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송대 선을 전하였다.

이와 같이 양기과에서 뛰어난 선승들이 배출되면서 그들의 어록, 총서, 일화집 등 다양한 선적이 편찬, 간행되었다. 이러한 선적이 고려 선종계에서 언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단편적인 기록을 종합하면 12세기 후반에 점차 수용되었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선사 단계에서는 폭넓게 수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염송집』은 양기과의 어록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양기과의 선이 고려 선종계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양기과의 어록이 『염송집』에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착어의 인용 횟수가 많은 선승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죽암사규(144), 보령인용(128), 승승서공(112), 남화지병(105), 송원승악(105), 불안청원(102), 상방일익(99), 오조법연(49), 밀암함결(45), 공수종인(45), 불감혜근(43), 목암법충(30), 백운수단(16), 한암혜승(12), 무용정전(6) 등의 순이다. 대해종고와 원오극근의 착어를 포함하면 『염송집』에서 양기과의 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것은 수선사가 『염송집』을 편찬할 무렵에 양기과가 송대 선종계를 주도하였던 위상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양상이다.

인용 횟수로 보면, 오조법연 - 원오극근 - 대해종고로 이어지는 양기과의 주류를 이루었던 선승들의 착어가 『염송집』에서 기본적으로 중시되었다. 또한 법연의 문하에서 원오와 함께 삼불로 불린 불안청원, 불감혜근이나 그들의 문하인 죽암사규, 남화지병, 목암법충 등의 착어가 많다. 그러나 보령인용, 상방일익, 승승서공 등 양기과의 주류가 아닌 선승들의 착어가 『염송집』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대해종고가 간화선을 완성한 이후에 대해파가 남송말 이후의 선종계를 석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해파의 착어가 적고, 호구과의 착어가 오히려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밀암함결, 송원승악 등의 착어는 대해 문하의 착어에 비해 인용 횟

수가 훨씬 많다. 이러한 사실은 수선사가 양기파의 법통 문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양기파 착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 양기파의 착어는 송대 공안 비평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염고보다 송고가 주류를 차지하지만, 다른 종파에 비해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둘째, 양기파의 착어 가운데 상당의 비중이 대단히 크며, 『염송집』 전체에서 다른 종파에 비해 양기파의 비중이 가장 크다. 또한 이러한 착어는 대혜종고와 원오극근의 착어에서 볼 수 있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원문을 그대로 전재한다든지,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다.

셋째, 착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공안 비평에 대한 것이며, 간화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혜의 착어이며, 특히 『염송집』에 무려 12칙에 걸쳐 인용되어 있는 「秦國太夫人講普說」이 인용된 내용에서 간화선과 전혀 무관한 공안 비평으로 일관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양기파의 착어 전체를 분석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대혜파나 호구파가 남송의 선종계를 석권하면서 간화선이 당시 남송의 선종계에서 성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파의 착어에서도 간화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양기파의 착어뿐만 아니라 『염송집』에 수록된 착어 전체를 분석해도 마찬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염송집』은 간화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안 비평이라는 문자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되었던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결론은 수선사의 공안 주석서나 일연, 혼구 등 가지산문의 공안 주석서가 13세기말까지 지속적으로 저술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1> 『염송집』에 인용된 保寧仁勇의 착어 일람표⁴¹⁾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2 (世尊)	頌古 上堂	X69-289c4 X69-283c	상당 전체 인용
2	3 (世尊)	上堂云	X69-281a14	
3	5 (世尊)	頌古	X69-289c20	『聯珠』
4	13 (世尊)	上堂學云	X69-285c3	
5	14 (世尊)	頌古	X69-289c15	『聯珠』
6	16 (世尊)	頌古	X69-289c10	『聯珠』
7	40 (法華經)	頌古	X69-290b14	『聯珠』
8	50 (楞嚴經)	上堂學云	X69-288c	
9	56 (金剛經)	頌古	X69-290b20	『聯珠』
10	61 (文殊菩薩說 般若經)	頌古	X69-290b23	『聯珠』
11	64 (維摩)	頌古	X69-290b17	『聯珠』
12	65 (文殊)	頌古	X69-290a2	『聯珠』
13	76(賓頭盧尊者)	頌古	X69-290a10	『聯珠』
14	81 (迦葉)	頌古	X69-290a6	『聯珠』
15	94(摩拏羅尊者)	學云	X69-279c20	
16	98 (達磨)	頌古	X69-290a14	『聯珠』
17	101 (達磨)	頌古	X69-290a23	『聯珠』
18	110 (六祖慧能)	頌古	X69-290b3	『聯珠』
19	119 (南嶽懷讓)	頌古	X69-290b10	『聯珠』
20	121 (南嶽懷讓)	頌古	X69-290c15	『聯珠』
21	124 (永嘉玄覺)	學云	X69-289a5	
22	146 (慧忠國師)	上堂學云		『統要』
23	149 (清源行思)	頌古	X69-290c7	『聯珠』
24	161 (馬祖道一)	頌古	X69-291a1	『聯珠』
25	162 (馬祖道一)	頌古	X69-291a6	
26	169 (馬祖道一)	頌古	X69-291a10	『聯珠』
27	170 (大同廣澄)	頌古		『聯珠』

41) 모든 표에서 『염송집』은 고려대장경 재조본의 영인본(『고려대장경』 46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을 이용하였으며, <표>의 칙수는 본칙의 수록 순서에 따른 것이다. 大正新脩大藏經은 T, 新纂大日本續藏經은 X로 표기하고, 『禪宗頌古聯珠集』은 『聯珠』, 『聯燈會要』는 『聯燈』, 『嘉泰普燈錄』은 『普燈』, 『正法眼藏』은 『正法』으로 줄여서 표기하였다. 비고의 단독은 『염송집』의 본칙에서 착어가 하나만 인용된 것을 말한다. 『保寧仁勇禪師語錄』의 원제목은 『金陵保寧禪院勇禪師語錄』이며, 대일본속장경 69권에 수록된 것을 이용하였다.

28	181 (百丈懷海)	頌古	X69-290c21	『聯珠』
29	182 (百丈懷海)	頌古	X69-291a12	『聯珠』
30	185 (百丈懷海)	頌古	X69-291a18	『聯珠』
31	194 (麻谷寶徹)	頌古	X69-292c14	『聯珠』
32	204 (南泉普願)	頌古	X69-291b12	『聯珠』
33	207 (南泉普願)	頌古 頌古	X69-291b16 X69-291b20	『聯珠』
34	208 (南泉普願)	頌古	X69-291c21	『聯珠』
35	209 (南泉普願)	頌古	X69-292a20	『聯珠』
36	210 (南泉普願)	頌古	X69-291c5	
37	214 (南泉普願)	頌古	X69-291c11	
38	217 (南泉普願)	頌古	X69-291c16	『聯珠』
39	219 (南泉普願)	頌古	X69-291b7	『聯珠』
40	234 (南泉普願)	頌古	X69-291bc	
41	274 (洪州水潦)	頌古		『聯珠』
42	286 (則川和尚)	頌古		『聯珠』
43	295 (龍山和尚)	頌古		『聯珠』
44	321 (丹霞天然)	上堂舉云	X69-280a11	
45	327 (藥山惟儼)	頌古	X69-292a10	『聯珠』
46	337 (藥山惟儼)	頌古	X69-292a15	『聯珠』
47	347 (長髭曠)	頌古	X69-292a3	『聯珠』
48	354 (潮州大顛)	頌古	X69-292c23	『聯珠』
49	355 (滄山靈祐)	頌古	X69-291b1	『聯珠』
50	369 (滄山靈祐)	頌古	X69-292b22	『聯珠』
51	371 (滄山靈祐)	頌古	X69-292b17	『聯珠』
52	375 (滄山靈祐)	頌古 上堂云	X69-292b11	『聯珠』
53	376 (滄山靈祐)	頌古	X69-292c8	
54	394 (黃蘗希運)	頌古	X69-292ab	『聯珠』
55	408 (趙州從諗)	頌古		『聯珠』
56	409 (趙州從諗)	頌古		『聯珠』
57	412 (趙州從諗)	頌古		『聯珠』
58	421 (趙州從諗)	頌古		『聯珠』
59	424 (趙州從諗)	頌古		『聯珠』
60	430 (趙州從諗)	頌古		『聯珠』
61	432 (趙州從諗)	頌古		『聯珠』
62	487 (趙州從諗)	頌古 上堂舉云	X69-288c	『聯珠』
63	491 (長沙景岑)	頌古		『聯珠』
64	493 (長沙景岑)	上堂舉云		
65	496 (長沙景岑)	頌古		『聯珠』

66	505 (甘贊行者)	頌古		『聯珠』
67	510 (五臺智通)	頌古		『聯珠』, 『善燈』
68	512 (鎮州普化)	上堂舉云	X69-286c2	
69	546 (三平義忠)	上堂舉云	X69-284b16	
70	556 (石霜慶諸)	頌古	X69-293a13	『聯珠』
71	558 (石霜慶諸)	頌古	X69-293a9	『聯珠』
72	564 (漸源仲興)	頌古	『聯珠』625b13	『정법』 604a10 『연등』 176a12 『보등』 460c22
73	573 (仰山惠寂)	頌古	X69-292b5	『聯珠』
74	575 (仰山惠寂)	頌古	X69-293a4	『聯珠』, 단독
75	590 (靈雲志勤)	頌古 上堂舉云	『聯珠』 614b5 X69-286a	『보등』 461a4
76	592 (靈雲志勤)	頌古		『聯珠』
77	600 (香巖智閑)	頌古	『聯珠』 633c15	『정법』 606c
78	607 (臨濟義玄)	頌古	X69-293b4	『聯珠』
79	617 (臨濟義玄)	頌古	X69-293b9	『聯珠』
80	622 (臨濟義玄)	頌古		『聯珠』
81	627 (臨濟義玄)	上堂舉云	X69-287a12	
82	635 (臨濟義玄)	頌古	X69-293b16	『聯珠』
83	655 (睦州道蹤)	頌古		『聯珠』, 단독
84	664 (德山宣鑿)	頌古	X69-293b20	『聯珠』
85	665 (德山宣鑿)	頌古	X69-293c2	『聯珠』
86	671 (德山宣鑿)	頌古		『聯珠』
87	685 (洞山良价)	頌古	X69-294a7	『聯珠』
88	698 (洞山良价)	上堂舉云	X69-289a	
89	710 (夾山善會)	頌古		『聯珠』
90	716 (夾山善會)	上堂舉云		
91	727 (投子大同)	頌古		『聯珠』
92	751 (三聖慧然)	頌古 上堂舉云	X69-282a	『聯珠』
93	755 (魏府大覺)	頌古		단독
94	766 (定州善崔)	頌古		
95	780 (雪峯義存)	頌古	X69-293c6	『聯珠』
96	789 (雪峯義存)	上堂舉云	X69-286a	
97	794 (雪峯義存)	頌古	X69-293c10	『聯珠』
98	795 (雪峯義存)	頌古	X69-293c18	『聯珠』
99	812 (雪峯義存)	頌古	X69-293c23	『聯珠』
100	816 (雪峯義存)	頌古	X69-293c14	『聯珠』
101	826 (巖頭全豁)	頌古		『聯珠』
102	846 (大隨法眞)	頌古		『聯珠』

103	847 (大隨法眞)	頌古		
104	848 (大隨法眞)	頌古		『聯珠』
105	917 (越州乾峯)	頌古		『聯珠』
106	923 (霍山景通)	頌古		『聯珠』
107	932 (九峯道虔)	頌古		『聯珠』
108	984 (玄沙師備)	頌古		『聯珠』
109	1018(雲門文偃)	頌古	X69-294a2	『聯珠』
110	1036(雲門文偃)	上堂舉云		
111	1118(鏡清道忞)	頌古		『聯珠』
112	1134 (孚上座)			
113	1139(鵝湖和尚)	上堂舉云	X69-280c	
114	1164(鎮州保壽)	頌古		『聯珠』
115	1192(芭蕉慧情)	頌古		『聯珠』
116	1219(巴陵顛鑑)	頌古		『聯珠』
117	1221(巴陵顛鑑)	頌古		『聯珠』
118	1222(巴陵顛鑑)	頌古		『聯珠』
119	1229(洞山守初)	頌古		『聯珠』
120	1247(風穴延昭)	頌古		『聯珠』
121	1252(風穴延昭)	頌古		단독
122	1288(法眼文益)	頌古		단독
123	1293(法眼文益)	頌古		『聯珠』
124	1320(首山省念)	頌古		『聯珠』
125	1393(雲居道齊)	頌古		
126	1403(楊岐方會)	頌古		『聯珠』
127	1426 (肇法師)	舉云		단독
128	1431 (傅大士)	上堂舉云		

〈표2〉 『염송집』에 인용된 白雲守端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출전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출전
1	5 (世尊)	拈古 舉云	X69-308c	9	1016(雲門文偃)	頌古	X69-301a
2	49 (楞嚴經)	頌古 頌古	X69-295c X69-322a	10	1099(雲門文偃)	云	
3	129 (慧忠國師)	拈古	X69-312a	11	1229(洞山守初)	拈古	
4	275 (百丈惟政)	拈古	X69-315a	12	1230(洞山守初)	頌古	X69-301c
5	546 (三平義忠)	示衆舉云	X69-307a	13	1290(法眼文益)	頌古	X69-302a
6	607 (臨濟義玄)	頌古	X69-322a	14	1387(石霜楚圓)	頌古	X69-324c
7	783 (雪峯義存)	云		15	1388(石霜楚圓)	示衆舉云	X69-294c
8	793 (雪峯義存)	拈古		16	1430(傅大士)	拈古	

〈표3〉 『염송집』에 인용된 五祖法演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98 (達磨)	上堂學云		T47-650c
2	100 (達磨)	上堂學云		T47-656b
3	101 (達磨)	上堂學云		T47-660b
4	102 (達磨)	學云	X68-130b	『정법』, X67-562c 『연등』, X79-136b
5	105 (二祖)	頌古		T47-653a
6	112 (六祖慧能)	學云	X68-147a	
7	115 (六祖慧能)	拈古		T47-651c
8	146 (慧忠國師)	上堂學云 上堂學云		T47-658b T47-663c
9	161 (馬祖道一)	頌古		T47-656c
10	164 (馬祖道一)	上堂學云	X68-138a	
11	169 (馬祖道一)	頌古	X68-137c	『聯珠』, X65-526c
12	212 (南泉普願)	小參學云	X68-142b	『정법』, X67-610b 『연등』, X79-137a 『보등』, X79-336
13	215 (南泉普願)	上堂學云		T47-659c
14	324 (藥山惟儼)	上堂學云	X68-131c	『정법』, X67-572b
15	325 (藥山惟儼)	小參學云	X68-146a	
16	326 (藥山惟儼)	上堂學云	X68-131b	
17	347 (長髭曠)	頌古	X68-147b	
18	417 (趙州從諗)	頌古 上堂學云	X68-147c X68-146c	『聯珠』, X65-592c 『연등』, X79-59c 『보등』, X79-452a
19	430 (趙州從諗)	上堂學云	X68-140a	『보등』, X79-
20	453 (趙州從諗)	上堂學云	X68-135c	
21	512 (鎮州普化)	上堂學云	X68-145b	
22	564 (漸源仲興)	上堂學云	X68-136a	
23	590 (靈雲志勤)	拈古	X68-135c	
24	607 (臨濟義玄)	上堂學云	X68-136c	
25	664 (德山宣鑿)	上堂學云	X68-138b	
26	667 (德山宣鑿)	小參學云	X68-130a	『연등』, X79-136a
27	725 (投子大同)	上堂學云	X68-145b	
28	729 (投子大同)	上堂學云	X68-131b	
29	751 (三聖慧然)	上堂學云	X68-146b	
30	780 (雪峯義存)	上堂學云	X68-141a	『정법』, X67-580a
31	785 (雪峯義存)	上堂學云	X68-145c	
32	788 (雪峯義存)	上堂學云	X68-145a	

33	790 (雪峯義存)	上堂學云	X68-147a	
34	992 (玄沙師備)	上堂學云	X68-132b	
35	1008 (雲門文偃)	上堂學云	X68-131a	
36	1014 (雲門文偃)	上堂云 上堂學云	X68-145b X68-139c	
37	1018 (雲門文偃)	上堂學云	X68-133c	
38	1019 (雲門文偃)	頌古	X68-136a	『聯珠』, X65-680b
39	1022 (雲門文偃)	上堂學云	X68-139b	
40	1038 (雲門文偃)	上堂學云	X68-133c	
41	1079 (雲門文偃)	上堂學云	X68-136a	
42	1148 (曹山慧霞)	上堂學云	X68-141c	『정법』, X67-580a
43	1221 (巴陵顛鑑)	上堂學云	X68-137a	
44	1230 (洞山守初)	頌古	X68-146c	『승보전』, X79-554b
45	1232 (洞山守初)	學云	X68-131b	『정법』, X67-569b, 단독
46	1249 (風穴延昭)	上堂學云	X68-133c	
47	1295 (法眼文益)	上堂學云	X68-136b	
48	1320 (首山省念)	上堂學云	X68-136b	
49	1379 (瑯琊慧覺)	拈古	X68-139b	『보등』, X79-452a

〈표4〉 『염송집』에 인용된 崇勝瑞珙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5 (世尊)	頌古		57	619 (臨濟義玄)	頌古	
2	16 (世尊)	頌古		58	622 (臨濟義玄)	頌古	
3	32 (世尊)	頌古		59	635 (臨濟義玄)	頌古	
4	50 (楞嚴經)	頌古		60	637 (睦州道蹤)	頌古	
5	51 (楞嚴經)	頌古		61	640 (睦州道蹤)	頌古	
6	55 (金剛經)	頌古		62	724 (投子大同)	頌古	
7	76(賓頭盧尊者)	頌古		63	743 (投子大同)	頌古	단독
8	81 (迦葉)	頌古		64	747 (鳥窠道林)	頌古	
9	110 (六祖慧能)	頌古		65	757 (興化存獎)	頌古	
10	130 (慧忠國師)	頌古		66	761 (興化存獎)	頌古	
11	159 (馬祖道一)	頌古		67	768 (定上座)	頌古	
12	169 (馬祖道一)	頌古		68	771 (雲山和尚)	頌古	
13	177 (百丈懷海)	頌古		69	772 (虎溪庵主)	頌古	단독
14	178 (百丈懷海)	頌古		70	775 (桐峰庵主)	頌古	
15	181 (百丈懷海)	頌古		71	778 (叢上座)	頌古	
16	182 (百丈懷海)	頌古		72	793 (雪峯義存)	頌古	
17	184 (百丈懷海)	頌古		73	794 (雪峯義存)	頌古	

18	199 (鹽官齊安)	頌古		74	799 (雪峯義存)	頌古	
19	207 (南泉普願)	頌古		75	800 (雪峯義存)	頌古	
20	213 (南泉普願)	頌古		76	816 (雪峯義存)	頌古	
21	256 (歸宗智常)	頌古		77	846 (大隨法眞)	頌古	
22	257 (歸宗智常)	頌古		78	848 (大隨法眞)	頌古	
23	260 (歸宗智常)	頌古	단독	79	884 (曹山本寂)	頌古	
24	278 (石鞏慧藏)	頌古		80	985 (玄沙師備)	頌古	
25	282 (金牛和尚)	頌古		81	991 (玄沙師備)	頌古	
26	284 (汾州無業)	頌古		82	992 (玄沙師備)	頌古	
27	313 (龐居士)	頌古		83	1014(雲門文偃)	頌古	
28	315 (龐居士)	頌古	단독	84	1018(雲門文偃)	頌古	
29	316 (龐居士)	頌古		85	1022(雲門文偃)	頌古	
30	321 (丹霞天然)	頌古		86	1023(雲門文偃)	頌古	
31	347 (長髭曠)	頌古		87	1024(雲門文偃)	頌古	
32	369 (滄山靈祐)	頌古		88	1037(雲門文偃)	頌古	
33	371 (滄山靈祐)	頌古		89	1073(雲門文偃)	頌古	
34	382 (滄山靈祐)	頌古		90	1085(雲門文偃)	頌古	단독
35	388 (黃蘗希運)	頌古		91	1119(鏡清道忞)	頌古	
36	389 (黃蘗希運)	頌古		92	1120(鏡清道忞)	頌古	
37	391 (黃蘗希運)	頌古		93	1131 (孚上座)	頌古	
38	411 (趙州從諗)	頌古		94	1155(南院慧顒)	頌古	단독
39	412 (趙州從諗)	頌古		95	1159(南院慧顒)	頌古	단독
40	421 (趙州從諗)	頌古		96	1164 (眞州2世寶壽)	頌古	
41	422 (趙州從諗)	頌古	단독	97	1219(巴陵顛鑑)	頌古	
42	423 (趙州從諗)	頌古		98	1220(巴陵顛鑑)	頌古	
43	424 (趙州從諗)	頌古		99	1221(巴陵顛鑑)	頌古	
44	457 (趙州從諗)	頌古		100	1227(香林澄遠)	頌古	단독
45	499 (子湖利蹤)	頌古		101	1230(洞山守初)	頌古	
46	500 (子湖利蹤)	頌古		102	1236(薦福承古)	頌古	
47	505 (池州甘贄)	頌古		103	1290(法眼文益)	頌古	
48	506 (池州甘贄)	頌古		104	1291(法眼文益)	頌古	
49	510(五臺山智通)	頌古		105	1292(法眼文益)	頌古	
50	512 (鎮州普化)	頌古		106	1295(法眼文益)	頌古	
51	564 (漸源仲興)	頌古		107	1339(汾陽善昭)	頌古	
52	569 (仰山惠寂)	頌古		108	1346(廣慧元璉)	頌古	단독
53	590 (靈雲志勤)	頌古		109	1360(金陵玄覺)	頌古	
54	607 (臨濟義玄)	頌古		110	1386(石霜楚圓)	頌古	
55	611 (臨濟義玄)	頌古		111	1430 (傅大士)	頌古	
56	616 (臨濟義玄)	頌古		112	1448 (布袋)	頌古	단독

〈표5〉 『염송집』에 인용된 上方日益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비고
1	2 (世尊)	頌古		51	590 (靈雲志勤)	頌古	
2	5 (世尊)	頌古		52	600 (香嚴智閑)	頌古	『聯珠』
3	6 (世尊)	頌古		53	607 (臨濟義玄)	頌古	『聯珠』
4	14 (世尊)	上堂學云		54	614 (臨濟義玄)	頌古 拈古	
5	35 (世尊)	學云		55	617 (臨濟義玄)	頌古	『聯珠』
6	55 (金剛經)	學云		56	623 (臨濟義玄)	拈古	
7	81 (迦葉)	頌古		57	635 (臨濟義玄)	頌古	『聯珠』
8	101 (達磨)	頌古		58	646 (睦州道蹤)	拈古	
9	107 (三祖)	學云		59	665 (德山宣鑿)	頌古	『聯珠』
10	110 (六祖慧能)	學云		60	666 (德山宣鑿)	頌古	『聯珠』
11	112 (六祖慧能)	拈古		61	668 (德山宣鑿)	頌古	
12	130 (慧忠國師)	頌古		62	671 (德山宣鑿)	頌古	
13	131 (慧忠國師)	頌古		63	687 (洞山良价)	示衆學云	
14	146 (慧忠國師)	學云		64	689 (洞山良价)	上堂學云	
15	149 (清源行思)	學代云		65	716 (夾山善會)	上堂學云	
16	164 (馬祖道一)	拈古		66	756 (興化存獎)	頌古	『聯珠』
17	169 (馬祖道一)	頌古		67	757 (興化存獎)	頌古	
18	177 (百丈懷海)	頌古		68	767 (定上座)	拈古	
19	178 (百丈懷海)	頌古		69	782 (雪峯義存)	上堂學云	
20	181 (百丈懷海)	頌古		70	783 (雪峯義存)	頌古	『聯珠』
21	184 (百丈懷海)	頌古 頌古		71	810 (雪峯義存)	上堂學云	
22	207 (南泉普願)	頌古 頌古		72	830 (巖頭全豁)	頌古	『聯珠』
23	209 (南泉普願)	頌古	『聯珠』	73	837 (巖頭全豁)	上堂學云	
24	235 (南泉普願)			74	847 (大隨法眞)	頌古	
25	274 (洪州水潦)			75	848 (大隨法眞)	頌古	
26	307 (龐居士)	頌古		76	918 (越州乾峯)	上堂學云	
27	313 (龐居士)	頌古	『聯珠』	77	932 (九峯道虔)	頌古	
28	354 (潮州大顛)	拈古		78	1006(雲門文偃)	頌古	
29	355 (滄山靈祐)	頌古	『聯珠』	79	1009(雲門文偃)	頌古	『聯珠』
30	356 (滄山靈祐)	頌古	『聯珠』	80	1014(雲門文偃)	頌古	『聯珠』
31	390 (黃蘗希運)	上堂學云		81	1015(雲門文偃)	頌古	
32	408 (趙州從諗)	頌古		82	1017(雲門文偃)	頌古	『聯珠』
33	410 (趙州從諗)	學別云		83	1022(雲門文偃)	頌古	
34	411 (趙州從諗)	頌古		84	1023(雲門文偃)	頌古	
35	412 (趙州從諗)	頌古 拈古	『聯珠』	85	1079(雲門文偃)	拈古	

36	429 (趙州從諗)	拈古 上堂云		86	1142(金峯從志)	拈古	
37	436 (趙州從諗)	拈古		87	1164 (鎮州2世寶壽)	頌古	『聯珠』
38	438 (趙州從諗)	頌古		88	1224(香林澄遠)	頌古	『聯珠』
39	439 (趙州從諗)	頌古		89	1229(洞山守初)	拈古	
40	445 (趙州從諗)	頌古		90	1247(風穴延昭)	上堂學云	
41	453 (趙州從諗)	頌古		91	1250(風穴延昭)	頌古	
42	487 (趙州從諗)	代		92	1285 (蓮花峯庵主)	小參學云	
43	492 (長沙景岑)	拈古		93	1290(法眼文益)	頌古	『聯珠』
44	493 (長沙景岑)	頌古	『聯珠』	94	1335(汾陽善昭)	頌古	
45	499 (子湖利蹤)	上堂學云		95	1338(汾陽善昭)	上堂學云	
46	512 (鎮州普化)	頌古		96	1372(天衣義懷)	學云	
47	515 (鎮州普化)	頌古		97	1398(黃龍慧南)	頌古	
48	564 (漸源仲興)	拈古		98	1434(南嶽慧思)	拈古	
49	573 (仰山惠寂)	頌古		99	1459(大宗皇帝)	頌古	
50	587 (仰山惠寂)	頌古					

〈표6〉 『염송집』에 인용된 佛眼清遠의 착어 일람표⁴²⁾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5 (世尊)	頌古	X68-219c8	『聯珠』(X65-504c)
2	6 (世尊)	頌古	X68-219c5	『聯珠』(X65-483c)
3	16 (世尊)	頌古	X68-219c2	『聯珠』(X65-484b)
4	32 (世尊)	頌古	X68-222c	『聯珠』(X65-488a)
5	33 (世尊)	小參學云	X68-203a	
6	74 (毗目仙人)	上堂云	X68-177c	
7	81 (迦葉)	上堂學云	X68-188c	
8	93 (婆修盤頭尊者)	上堂學云	X68-183bc	
9	95 (師子尊者)	頌古	X68-222b9	『聯珠』(X65-506c16) 『善燈』(X79-43a14)
10	100 (達磨)	頌古	X68-219c11	『聯珠』(X65-510b)
11	110 (六祖慧能)	頌古	X68-219c14	
12	115 (六祖慧能)	上堂學云	X68-193bc	
13	118 (蒙山道明)	上堂學云	X68-181a	
14	126 (永嘉玄覺)	學云	X68-190bc	

42) 불안청원의 어록은 『舒州龍門佛眼和尚語錄』이며, 현재 『古尊宿』에 수록된 것을 이용하였다.

15	130 (慧忠國師)	頌古	X68-219c18	
16	131 (慧忠國師)	上堂學云	X68-182b	
17	153 (破竈墮)	頌古 頌古	X68-221c15 X68-221c22	
18	157 (馬祖道一)	舉云	X68-178c	
19	161 (馬祖道一)	代云	X68-224a	
20	162 (馬祖道一)	上堂	X68-180c	
21	164 (馬祖道一)	上堂學云	X68-178c	
22	177 (百丈懷海)	頌古	X68-219c20	『聯珠』(X65-529c)
23	178 (百丈懷海)	頌古	X68-220a7	
24	179 (百丈懷海)	頌古	X68-220a4	『聯珠』(X65-530a)
25	181 (百丈懷海)	頌古 頌古 上堂學云	X68-220a10 X68-220a19 X68-175c~176a	『聯珠』(X65-529a) 『聯珠』(X65-529c4)
26	182 (百丈懷海)	上堂學云	X68-176b	
27	184 (百丈懷海)	頌古 頌古 頌古 舉云	X68-222a4 X68-222a10 X68-222a15 X68-219b	『聯珠』(X65-531c) 『普燈』(X79-463a)
28	185 (百丈懷海)	上堂學云	X68-193b	
29	188 (魯祖寶雲)	頌古	X68-221b10	『聯珠』(X65-549a)
30	203 (南泉普願)	頌古	X68-220c6	
31	204 (南泉普願)	上堂學云	X68-183ab	
32	207 (南泉普願)	頌古 頌古	X68-221a14 X68-221a19	『聯珠』(X65-535c7) 『聯珠』(X65-535c9)
33	208 (南泉普願)	頌古	X68-221a22	『聯珠』(X65-537a8)
34	212 (南泉普願)	上堂	X68-179c	『聯珠』(X65-573b)
35	220 (南泉普願)	小參學云	X68-202c	
36	224 (南泉普願)	頌古	X68-220c	『聯珠』(X65-538c10)
37	225 (南泉普願)	代云	X68-224b	
38	226 (南泉普願)	頌古	X68-221a11	
39	227 (南泉普願)	頌古	X68-220c19	『聯珠』(X65-536b12)
40	254 (盤山寶積)	頌古	X68-222c17	『聯珠』(X65-543b20)
41	269 (大梅法常)	云	X68-224c	
42	275 (百丈惟政)	頌古 上堂學云	X68-220a21 X68-187a	『聯珠』(X65-546b12)
43	281 (金牛和尚)	頌古	X68-221b24	『聯珠』(X65-551c3)
44	293 (五洩靈默)	頌古	X68-222c6	『聯珠』(X65-542b7)
45	302 (華林善覺)	上堂學云	X68-182c	
46	324 (藥山惟儼)	上堂云	X68-175bc	
47	329 (藥山惟儼)	上堂學云	X68-174ab	단독

48	367 (滄山靈祐)	上堂學云	X68-186a	
49	369 (滄山靈祐)	頌古	X68-222b	『聯珠』(X65-567a)
50	378 (滄山靈祐)	上堂學云	X68-193a	
51	388 (黃蘗希運)	頌古	X68-220b3	
52	389 (黃蘗希運)	頌古	X68-220b10	
53	390 (黃蘗希運)	頌古	X68-220b19	『聯珠』(X65-569a16)
54	391 (黃蘗希運)	頌古	X68-220b24	『聯珠』(X65-534b24)
55	392 (黃蘗希運)	頌古	X68-220c11	『聯珠』(X65-568c6) 단독
56	396 (黃蘗希運)	頌古	X68-220b	『聯珠』(X65-569b23)
57	408 (趙州從諗)	上堂學云	X68-174c	
58	411 (趙州從諗)	頌古	X68-222c12	『聯珠』(X65-594c14)
59	412 (趙州從諗)	頌古 頌古	X68-222a1 X68-222a2	
60	429 (趙州從諗)	上堂學云 上堂	X68-185a X68-185c	『普燈』(X79-454a)
61	435 (趙州從諗)	上堂學云	X68-192b	『聯珠』(X65-610c19)
62	436 (趙州從諗)	上堂學云	X68-182b	『普燈』(X79-454a)
63	466 (趙州從諗)	上堂學云	X68-191c	단독
64	492 (長沙景岑)	上堂學云	X68-180a	
65	499 (子湖利蹤)	頌古	X68-222b21	『聯珠』(X65-572b11)
66	511 (壽州良遂)	頌古	X68-222c24	『聯珠』(X65-544c15)
67	517 (崇慧禪師)	上堂	X68-176c	
68	537 (高沙彌)	代云	X68-225b	
69	546 (三平義忠)	上堂學云	X68-187bc	
70	552 (金華俱胝)	頌古	X68-221b4	『聯珠』(X65-616b18) 『普燈』(X79-463a3)
71	558 (石霜慶諸)	拈古	X68-181a	
72	574 (仰山惠寂)	普說學云	X68-215b	
73	590 (靈雲志勤)	頌古	X68-222a17	『聯珠』(X65-614c14)
74	594 (靈雲志勤)	上堂學云	X68-181c	
75	604 (京兆米胡)	頌古	X68-221b	『聯珠』(X65-634b)
76	607 (臨濟義玄)	頌古	X68-222a21	『聯珠』(X65-602c14)
77	608 (臨濟義玄)	上堂學云	X68-188a	
78	610 (臨濟義玄)	上堂學云	X68-175b	
79	652 (睦州道蹤)	上堂學云	X68-188c	단독
80	665 (德山宣鑿)	頌古	X68-221b7	『聯珠』(X65-617c4)
81	684 (洞山良价)	小參學云	X68-202a	
82	687 (洞山良价)	頌古	X68-190a22	『聯珠』(X65-621b22)
83	693 (洞山良价)	頌古	X68-221a3	『聯珠』(X65-539b2)
84	747 (鳥窠道林)	頌古	X68-222b24	『聯珠』(X65-517b18)

85	781 (雪峯義存)	頌古	X68-222b18	『聯珠』(X65-649b20)
86	784 (雪峯義存)	頌古	X68-221b15	『聯珠』(X65-673c23)
87	848 (大隨法眞)	頌古	X68-221b1	
88	920 (北院通)	學云	X68-205c	
89	984 (玄沙師備)	頌古	X68-222c3	『聯珠』
90	985 (玄沙師備)	頌古	X68-221c3	『聯珠』(X65-669b13) 『정법』(X67-564a) 『연등』(X69-205a7) 『普燈』(X79-463a6)
		上堂學云	X68-175c	
91	992 (玄沙師備)	普說學云	X68-210a	
		普說學云	X68-214a	
92	1011 (雲門文偃)	上堂	X68-184c	상당 전체 인용
93	1022 (雲門文偃)	頌古	X68-222b3	
94	1229 (洞山守初)	頌古	X68-222a24	『聯珠』(X65-700a10)
95	1230 (洞山守初)	上堂學云	X68-180c	『聯珠』(X65-700c13)
96	1285 (蓮華峯祥庵主)	上堂學云	X68-192b	
97	1294 (法眼文益)	普說學云	X68-222b	
98	1296 (法眼文益)	頌古	X68-222b15	
99	1398 (黃龍慧南)	頌古	X68-223a3	『聯珠』(X65-718c9)
100	1413 (五祖法演)	頌古	X68-223a10	『聯珠』(X65-724c18)
101	1414 (五祖法演)	頌古	X68-223a12	『聯珠』(X65-725a3)
		代云	X68-225b8	
102	1436 (文殊)	上堂	X68-179ab	

〈표7〉 『염송집』에 인용된 佛鑑慧勳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5 (世尊)	頌古		23	637 (睦州道蹤)	上堂	
2	6 (世尊)	頌古	『聯珠』	24	729 (投子大同)	頌古	『聯珠』
3	16 (世尊)	頌古	『聯珠』	25	751 (三聖慧然)	頌古	『聯珠』
		上堂					
4	32 (世尊)	頌古		26	767 (定上座)	頌古	『聯珠』
5	98 (達磨)	頌古	『聯珠』	27	918 (越州乾峯)	上堂	
		上堂					
6	101 (達磨)	頌古		28	1013 (雲門文偃)	頌古	
		頌古					
7	110 (六祖慧能)	頌古	『聯珠』	29	1015 (雲門文偃)	頌古	『聯珠』
		上堂					
8	132 (慧忠國師)	頌古	『聯珠』	30	1016 (雲門文偃)	頌古	
		頌古					

9	177 (百丈懷海)	頌古	『聯珠』	31	1017 (雲門文偃)	頌古	
10	178 (百丈懷海)	頌古	『聯珠』	32	1019 (雲門文偃)	頌古	『聯珠』
11	182 (百丈懷海)	頌古 云	『聯珠』	33	1020 (雲門文偃)	頌古	
12	188 (魯祖寶雲)	心要云		34	1023 (雲門文偃)	頌古	『聯珠』
13	209 (南泉普願)	頌古	『聯珠』	35	1219 (巴陵顛鑑)	頌古	
14	407 (趙州從諗)	頌古	『聯珠』	36	1230 (洞山守初)	頌古	
15	408 (趙州從諗)	頌古		37	1247 (風穴延昭)	上堂云	
16	409 (趙州從諗)	頌古		38	1248 (風穴延昭)	上堂云	
17	410 (趙州從諗)	頌古		39	1250 (風穴延昭)	頌古	
18	421 (趙州從諗)	頌古 云	『聯珠』	40	1281 (智門光祚)	頌古	『聯珠』
19	462 (趙州從諗)	云		41	1335 (汾陽善昭)	頌古	『聯珠』
20	493 (長沙景岑)	頌古	『聯珠』	42	1379 (瑯琊慧覺)	頌古	『聯珠』
21	615 (臨濟義玄)	頌古	『聯珠』	43	1436 (文殊)	頌古	
22	635 (臨濟義玄)	頌古	『聯珠』				

〈표8〉 『염송집』에 인용된 竹庵士珪의 차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차어	출전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차어	출전	비고
1	1 (世尊)	頌古	『東林』		73	657(陸州道蹤)	頌古	『東林』	
2	2 (世尊)	頌古	『東林』		74	668(德山宣鑒)	頌古	『東林』	『聯珠』
3	5 (世尊)	頌古	『東林』	『聯珠』	75	677(德山宣鑒)	上堂		
4	16 (世尊)	頌古 上堂	『東林』	『聯珠』	76	686(洞山良价)	頌古		
5	32 (世尊)	頌古	『東林』	『聯珠』	77	711(夾山善會)	頌古 上堂	『東林』	
6	40 (法華經)	頌古	『東林』	『聯珠』	78	712(夾山善會)	小參		
7	41 (涅槃經)	上堂			79	715(夾山善會)	頌古	『東林』	『聯珠』
8	47 (圓覺經)	頌古	『東林』	『聯珠』	80	726(投子大同)	頌古 拈古	『東林』	『聯珠』
9	50 (楞嚴經)	頌古 上堂	『東林』	『聯珠』	81	747(鳥窠道林)	拈古		
10	61 (文殊菩薩 所說般若經)	頌古	『東林』	『聯珠』	82	749(鎮州保壽)	頌古	『東林』	
11	64 (維摩)	頌古	『東林』	『聯珠』	83	751(三聖慧然)	頌古	『東林』	『聯珠』
12	72 (殃崛摩羅)	頌古	『東林』	『聯珠』	84	757(興化存獎)	頌古	『東林』	
13	95 (師子尊者)	頌古	『東林』	『聯珠』	85	758(興化存獎)	頌古 上堂	『東林』	『聯珠』
14	99 (達磨)	頌古	『東林』	『聯珠』	86	759(興化存獎)	頌古 拈古	『東林』	『聯珠』

15	100 (達磨)	頌古	『東林』	『聯珠』	87	760(興化存獎)	頌古 云 小參	『東林』	
	129 (慧忠國師)	云			88	761(興化存獎)	頌古	『東林』	『聯珠』
16	130 (慧忠國師)	頌古	『東林』	『聯珠』	89	766(定州善崔)	拈古		
17	131 (慧忠國師)	云			90	784(雪峯義存)	頌古 云	『東林』	
18	148 (清源行思)	頌古	『東林』	『聯珠』	91	790(雪峯義存)	頌古	『東林』	『聯珠』
19	156 (馬祖道一)	頌古	『東林』		92	831(巖頭全豁)	頌古	『東林』	『聯珠』
20	161 (馬祖道一)	頌古	『東林』	『聯珠』	93	832(巖頭全豁)	頌古	『東林』	『聯珠』
21	169 (馬祖道一)	云			94	852(大隨法眞)	云		
22	179 (百丈懷海)	頌古	『東林』		95	870(疎山光仁)	頌古	『東林』	『聯珠』
23	181 (百丈懷海)	頌古	『東林』	『聯珠』	96	886(曹山本寂)	上堂		
24	184 (百丈懷海)	頌古	『東林』	『聯珠』	97	917(越州乾峯)	上堂 上堂		
25	207 (南泉普願)	云			98	918(越州乾峯)	頌古 普說	『東林』	
26	209 (南泉普願)	頌古	『東林』	『聯珠』	99	979(玄沙師備)	云		
27	217 (南泉普願)	頌古	『東林』	『聯珠』	100	985(玄沙師備)	頌古	『東林』	『聯珠』
28	226 (南泉普願)	頌古	『東林』		101	988(玄沙師備)	頌古 上堂	『東林』	
29	242 (南泉普願)	頌古	『東林』		102	992(玄沙師備)	云		
30	243 (南泉普願)	頌古	『東林』		103	993(玄沙師備)	頌古	『東林』	『聯珠』
31	285 (汾州無業)	頌古 上堂	『東林』	『聯珠』	104	1014(雲門文偃)	頌古	『東林』	『聯珠』
32	288 (章敬懷惲)	上堂			105	1015(雲門文偃)	上堂		
33	293 (五洩靈默)	普說			106	1018(雲門文偃)	頌古	『東林』	
34	298 (烏臼和尚)	頌古	『東林』		107	1033(雲門文偃)	云		
35	324 (藥山惟儼)	頌古	『東林』		108	1037(雲門文偃)	拈古 上堂		
36	325 (藥山惟儼)	小參			10	1038(雲門文偃)	小參		
37	357 (滄山靈祐)	頌古	『東林』		1	1054(雲門文偃)	頌古	『東林』	
38	390 (黃蘗希運)	頌古	『東林』	『聯珠』	110	1068(雲門文偃)	上堂		
39	407 (趙州從諗)	頌古	『東林』	『聯珠』	111	1078(雲門文偃)	頌古	『東林』	『聯珠』
40	408 (趙州從諗)	頌古 拈古	『東林』		112	1081(雲門文偃)	頌古	『東林』	『聯珠』
41	409 (趙州從諗)	頌古	『東林』		113	1089(雲門文偃)	頌古	『東林』	
42	412 (趙州從諗)	頌古 上堂	『東林』	『聯珠』	114	1139(鵝湖和尚)	頌古	『東林』	
43	417 (趙州從諗)	頌古	『東林』	『聯珠』	115	1152(寶應慧顯)	頌古	『東林』	
44	423 (趙州從諗)	拈古 上堂			116	1164(鎮州保壽)	頌古 小參	『東林』	『聯珠』

45	424 (趙州從諗)	頌古	『東林』	『聯珠』	117	1192(芭蕉慧情)	頌古 上堂	『東林』	
46	425 (趙州從諗)	頌古	『東林』		118	1202(羅山道閑)	頌古 上堂	『東林』	
47	430 (趙州從諗)	頌古	『東林』		119	1229(洞山守初)	小參		
48	434 (趙州從諗)	頌古 上堂	『東林』	『聯珠』	120	1230(洞山守初)	上堂 上堂		
49	440 (趙州從諗)	拈古			121	1233(洞山守初)	頌古 云	『東林』	
50	443 (趙州從諗)	上堂			122	1234 (深明二上座)	頌古	『東林』	
51	447 (趙州從諗)	頌古	『東林』		123	1244(保福清懿)	小參		
52	448 (趙州從諗)	頌古	『東林』		124	1248(風穴延昭)	頌古	『東林』	『聯珠』
53	450 (趙州從諗)	頌古	『東林』		125	1272(明招德謙)	頌古	『東林』	『聯珠』
54	452 (趙州從諗)	頌古	『東林』	『聯珠』	126	1274(明招德謙)	頌古 小參	『東林』	
55	454 (趙州從諗)	頌古	『東林』		127	1320(首山省念)	頌古	『東林』	『聯珠』
56	455 (趙州從諗)	頌古	『東林』		128	1330(首山省念)	云		
	457 (趙州從諗)	小參 云			129	1331(首山省念)	頌古	『東林』	
57	479 (趙州從諗)	頌古	『東林』	『聯珠』	130	1347(石門蘊聰)	頌古		
58	505 (池州甘贄)	頌古	『東林』	『聯珠』	131	1368(北禪智賢)	云		
59	512 (鎮州普化)	頌古	『東林』	『聯珠』	132	1378(瑯琊慧覺)	頌古	『東林』	
60	552 (金華俱胝)	拈古			133	1388(石霜楚圓)	上堂		
61	590 (靈雲志勤)	頌古 頌古	『東林』	『聯珠』	134	1390(大愚守芝)	頌古	『東林』	『聯珠』
62	594 (靈雲志勤)	頌古	『東林』		135	1392(法華齊舉)	云		
63	600 (香巖智閑)	云			136	1400(黃龍慧南)	頌古	『東林』	
64	616 (臨濟義玄)	頌古	『東林』		137	1402(楊岐方會)	頌古	『東林』	
65	617 (臨濟義玄)	頌古	『東林』	『聯珠』	138	1403(楊岐方會)	頌古 拈古	『東林』	『聯珠』
66	618 (臨濟義玄)	頌古	『東林』		139	1412(白雲守端)	云		
67	619 (臨濟義玄)	云			140	1413(五祖法演)	拈古		
68	622 (臨濟義玄)	頌古	『東林』		141	1414(五祖法演)	拈古		
69	631 (臨濟義玄)	上堂 云			142	1415(五祖法演)	頌古	『東林』	
70	633 (臨濟義玄)	頌古	『東林』		143	1420(圓悟克勤)	頌古	『東林』	
71	635 (臨濟義玄)	頌古	『東林』	『聯珠』	144	1433(杜順和尚)	上堂		
72	639(睦州道蹤)	頌古 拈古	『東林』	『聯珠』					

〈표9〉 『염송집』에 인용된 南華知愚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비고
1	2 (世尊)	頌古 拈古		54	641 (陸州道蹤)	頌古	
2	5 (世尊)	頌古		55	671 (德山宣鑿)	拈古	
3	6 (世尊)	頌古		56	682 (洞山良价)	上堂學云	단독
4	14 (世尊)	拈古		57	686 (洞山良价)	拈古	
5	16 (世尊)	拈古		58	695 (洞山良价)	頌古 拈古	
6	32 (世尊)	拈古		59	721 (夾山善會)	頌古	
7	65 (文殊)	拈古		60	729 (投子大同)	學云	
8	81 (迦葉)	頌古	『聯珠』	61	746 (清平令遵)	頌古	『聯珠』
9	93 (婆修盤頭)	上堂學云		62	751 (三聖慧然)	上堂學云	
10	110 (六祖慧能)	學云		63	767 (定上座)	拈古	
11	164 (馬祖道一)	頌古 拈古	『聯珠』	64	790 (雪峯義存)	拈古	
12	169 (馬祖道一)	頌古	『聯珠』	65	796 (雪峯義存)	頌古	
13	181 (百丈懷海)	頌古 拈古	『聯珠』	66	826 (巖頭全豁)	拈古	
14	184 (百丈懷海)	拈古		67	837 (巖頭全豁)	頌古	
15	203 (南泉普願)	拈古		68	846 (大隨法眞)	拈古	
16	206 (南泉普願)	上堂學云		69	855 (雲居道膺)	頌古	
17	207 (南泉普願)	頌古		70	859 (雲居道膺)	頌古	
18	208 (南泉普願)	拈古		71	870 (疎山光仁)	拈古	
19	212 (南泉普願)	小參學云		72	880 (曹山本寂)	拈古	
20	222 (南泉普願)	頌古		73	890 (曹山本寂)	頌古	『聯珠』
21	240 (南泉普願)	拈古		74	894 (龍牙居遁)	拈古	
22	248 (盤山寶積)	頌古	『聯珠』	75	918 (越州乾峯)	拈古	
23	255 (歸宗智常)	頌古	『聯珠』	76	932 (九峯道虔)	拈古	
24	264 (歸宗智常)	拈古		77	935 (九峯道虔)	拈古	
25	269 (大梅法常)	頌古		78	981 (玄沙師備)	拈古	
26	321 (丹霞天然)	拈古		79	986 (玄沙師備)	頌古 拈古	
27	330 (藥山惟儼)	上堂學云	단독	80	1035(雲門文偃)	拈古 上堂云	
28	338 (藥山惟儼)	上堂學云		81	1045(雲門文偃)	上堂學云	
29	347 (長髭曠)	拈古		82	1078(雲門文偃)	上堂云	
30	355 (滄山靈祐)	拈古		83	1091(雲門文偃)	上堂學云	
31	371 (滄山靈祐)	上堂學云		84	1105(長慶慧稜)	頌古	
32	378 (滄山靈祐)	小參學云		85	1119(鏡清道忞)	上堂學云	

33	382 (滄山靈祐)	頌古		86	1136(鼓山神晏)	拈古	
34	390 (黃蘗希運)	拈古		87	1137(鼓山神晏)	拈古	
35	400 (大慈寶中)	拈古		88	1143(金峯從志)	拈古	단독
36	411 (趙州從諗)	拈古		89	1163 (鎮州2世寶壽)	頌古	『聯珠』
37	420 (趙州從諗)	上堂舉云	단독	90	1164 (鎮州2世寶壽)	頌古 拈古	『聯珠』
38	429 (趙州從諗)	學云		91	1207(羅漢桂琛)	上堂舉云	
39	439 (趙州從諗)	拈古		92	1225(香林澄遠)	拈古	
40	492 (長沙景岑)	頌古 拈古	『聯珠』	93	1230(洞山守初)	頌古	『聯珠』
41	505 (池州甘贄)	頌古		94	1244(保福清豁)	拈古	
42	514 (鎮州普化)	拈古		95	1247(風穴延昭)	拈古	
43	521 (雲巖曇晟)	頌古		96	1248(風穴延昭)	拈古	
44	545 (本生和尚)	拈古		97	1285 (蓮花峯庵主)	拈古	
45	558 (石霜慶諸)	學頌古曰		98	1290(法眼文益)	頌古 頌古	『聯珠』
46	569 (仰山惠寂)	頌古	『聯珠』	99	1293(法眼文益)	拈古	
47	571 (仰山惠寂)	拈古		100	1296(法眼文益)	頌古	
48	576 (仰山惠寂)	拈古		101	1300(法眼文益)	頌古	단독
49	590 (靈雲志勤)	頌古 拈古	『聯珠』	102	1301(法眼文益)	上堂舉云	
50	617 (臨濟義玄)	拈古		103	1313 (修山主)	上堂舉云	
51	628 (臨濟義玄)	上堂舉云		104	1320(首山省念)	頌古	『聯珠』
52	635 (臨濟義玄)	頌古	『聯珠』	105	1354(雪竇重顯)	頌古 拈古	단독
53	639 (臨濟義玄)	拈古					

〈표10〉 『염송집』에 인용된 牧庵法忠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비고
1	5 (世尊)	頌古		16	687 (洞山良价)	拈古	
2	32 (世尊)	頌古		17	750 (鎮州保壽)	上堂舉云	
3	101 (達磨)	頌古		18	751 (三聖慧然)	上堂舉云	
4	159 (馬祖道一)	頌古 頌古		19	777 (覆盆庵主)	拈古	단독
5	332 (藥山惟儼)	拈古		20	787 (雪峯義存)	拈古	
6	408 (趙州從諗)	頌古		21	833 (巖頭全豁)	拈古	
7	409 (趙州從諗)	頌古 上堂舉云		22	1015 (雲門文偃)	上堂舉云	

8	411 (趙州從諗)	頌古		23	1022 (雲門文偃)	頌古	
9	412 (趙州從諗)	頌古 拈古		24	1035 (雲門文偃)	上堂云	
10	429 (趙州從諗)	頌古		25	1121 (鏡清道忞)	拈古	
11	430 (趙州從諗)	上堂學云		26	1164 (鎮州2世保壽)	上堂學云	
12	434 (趙州從諗)	上堂學云		27	1230 (洞山守初)	頌古	
13	490 (長沙景岑)	學云		28	1283 (智門光祚)	頌古	
14	590 (靈雲志勤)	頌古		29	1320 (首山省念)	頌古	
15	686 (洞山良价)	拈古		30	1363 (天台德韶)	拈古	단독

〈표11〉 『염송집』에 인용된 無用淨全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21 (世尊)	頌古		4	710 (夾山善會)	頌古	
2	488 (長沙景岑)	上堂學云		5	918 (越州乾峯)	上堂學云	
3	590 (靈雲志勤)	頌古		6	1331(首山省念)	頌古	

〈표12〉 『염송집』에 인용된 寒巖慧升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23 (世尊)	普說學云		13	519 (鶴林素)	上堂學云	
2	32 (世尊)	頌古		14	542 (石室善道)	普說學云	단독
3	47 (圓覺經)	頌古 頌古 頌古 頌古		15	628 (臨濟義玄)	上堂學云	
4	61 (文殊菩薩所說般若經)	頌古		16	665 (德山宣鑿)	普說學云	
5	81 (迦葉)	頌古		17	686 (洞山良价)	上堂學云	
6	95 (師子尊者)	頌古		18	751 (三聖慧然)	上堂學云	
7	160 (馬祖道一)	上堂學云		19	784 (雪峯義存)	拈古	
8	235 (南泉普願)	上堂學云		20	1010(雲門文偃)	上堂學云	
9	357 (滄山靈祐)	頌古		21	1075(雲門文偃)	上堂學云	
10	390 (黃蘗希運)	頌古		22	1104(雲門文偃)	普說學云	단독
11	411 (趙州從諗)	上堂學云		23	1248(風穴延昭)	上堂學云	
12	443 (趙州從諗)	上堂學云		24	1281(智門光祚)	上堂學云	

〈표13〉 『염송집』에 인용된 空叟宗印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23 (世尊)	擧云		24	852 (大隨法眞)	上堂擧云	
2	65 (文殊)	上堂擧云		25	886 (曹山本寂)	擧云	
3	134 (慧忠國師)	上堂擧云		26	891 (曹山本寂)	擧云	
4	170 (馬祖道一)	上堂擧云		27	900 (龍牙居遁)	上堂擧云	
5	205 (南泉普願)	頌古		28	969 (洪州米嶺)	擧云	단독
6	210 (南泉普願)	擧云		29	997 (玄沙師備)	頌古	
7	217 (南泉普願)	拈古		30	1038(雲門文偃)	上堂擧云	
8	234 (南泉普願)	擧云		31	1039(雲門文偃)	上堂擧云	
9	368 (滄山靈祐)	頌古		32	1052(雲門文偃)	上堂擧云	
10	395 (黃蘗希運)	擧云		33	1123(鏡清道忞)	上堂擧云	
11	479 (趙州從諗)	擧云		34	1131(孚上座)	擧云	
12	538 (翠微無學)	擧云		35	1160(南院慧顥)	上堂擧云	
13	576 (仰山惠寂)	拈古		36	1211(安國慧球)	擧云	
14	588 (仰山惠寂)	擧云	단독	37	1249(風穴延昭)	上堂擧云	
15	596 (徑山洪諲)	擧云		38	1262(穎橋鐵胡)	擧云	
16	605 (京兆米胡)	擧云		39	1268(梁山緣觀)	擧云	
17	612 (臨濟義玄)	擧云		40	1278(대용)	擧云	
18	617 (臨濟義玄)	擧云		41	1349(石門蘊聰)	頌古	
19	695 (洞山良价)	擧云		42	1358(雲盖繼騰)	上堂擧云	
20	766 (定州善崔)	頌古		43	1385(石霜楚圓)	擧云	
21	826 (巖頭全豁)	拈古		44	1399(黃龍慧南)	擧云	단독
22	829 (巖頭全豁)	擧云		45	1418(五祖法演)	頌古	
23	833 (巖頭全豁)	頌古					

〈표14〉 『염송집』에 인용된 密庵咸傑의 착어 일람표⁴³⁾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8 (世尊)	上堂云	『徑山禪寺語錄』(X70-8a)	
2	16 (世尊)	上堂云	『乾明禪院語錄』(X70-3b)	
3	26 (世尊)	上堂云	『華藏禪寺語錄』(X70-7b)	
4	31 (世尊)	上堂擧云	『乾明禪院語錄』(X70-2b)	

43) 『臨安府徑山興聖萬壽禪寺語錄』은 『徑山禪寺語錄』, 『密庵和尚住衢州西烏巨山乾明禪院語錄』은 『乾明禪院語錄』, 『衢州大中祥符禪寺語錄』은 『大中祥符語錄』, 『常州褒忠顯報華藏禪寺語錄』은 『華藏禪寺語錄』, 『建康府蔣山太平興國禪寺語錄』은 『太平興國語錄』, 『明州太白名山天童景德禪寺語錄』은 『景德禪寺語錄』으로 각각 줄여 인용하였다.

5	32 (世尊)	頌古	『頌贊』(X70-20c)	
6	33 (世尊)	上堂云	『華藏禪寺語錄』(X70-7a)	
7	47 (圓覺經)	上堂學云	『大中祥符語錄』(X70-5b)	
8	159 (馬祖道一)	頌古	『頌贊』(X70-21a)	
9	161 (馬祖道一)		『頌贊』(X70-21a)	
10	182 (百丈懷海)	云		
11	184 (百丈懷海)	頌古	『頌贊』(X70-21a)	
12	206 (南泉普願)	上堂學云	『景德禪寺語錄』(X70-15b)	
13	251 (盤山寶積)	云	『大中祥符語錄』(X70-5a)	
14	312 (龐居士)	上堂學云	『乾明禪院語錄』(X70-3a)	
15	326 (藥山惟儼)	上堂學云	『大中祥符語錄』(X70-5a)	
16	412 (趙州從諗)	頌古	『頌贊』(X70-21a)	
17	417 (趙州從諗)	頌古	『頌贊』(X70-20c)	
18	429 (趙州從諗)	頌古	『頌贊』(X70-21a)	
19	430 (趙州從諗)	上堂云	『徑山禪寺語錄』(X70-13b)	
20	482 (趙州從諗)	云	『景德禪寺語錄』(X70-17a)	단독
21	483 (趙州從諗)	上堂學云	『華藏禪寺語錄』(X70-8a)	
22	607 (臨濟義玄)	頌古	『頌贊』(X70-21a)	
23	668 (德山宣鑒)	頌古	『頌贊』(X70-20c)	
24	690 (洞山良价)	上堂學云	『太平興國語錄』(X70-6b)	
25	714 (夾山善會)	上堂學云	『華藏禪寺語錄』(X70-9b)	
26	727 (投子大同)	上堂頌古	『徑山禪寺語錄』(X70-12a)	
27	741 (投子大同)	上堂學云	『徑山禪寺語錄』(X70-13b)	
28	751 (三聖慧然)	云	『乾明禪院語錄』(X70-1c)	
29	788 (雪峯義存)	云	『乾明禪院語錄』(X70-2b)	
30	833 (巖頭全豁)	學云	『景德禪寺語錄』(X70-15c)	
31	918 (越州乾峯)	云	『徑山禪寺語錄』(X70-13a)	
32	982 (玄沙師備)	上堂學云	『景德禪寺語錄』(X70-16c)	
33	992 (玄沙師備)	上堂學云	『徑山禪寺語錄』(X70-12b)	
34	1018(雲門文偃)	學云	『景德禪寺語錄』(X70-17a)	
35	1046(雲門文偃)	云	『密庵和尚小參』(X70-19a)	
36	1091(雲門文偃)	上堂學云	『乾明禪院語錄』(X70-3a)	
37	1141(金峯從志)	上堂學云	『乾明禪院語錄』(X70-4a)	
38	1164(鎮州2世寶壽)	學云	『乾明禪院語錄』(X70-2a)	
39	1179(同安常察)	上堂學云	『華藏禪寺語錄』(X70-9b)	단독
40	1248(風穴延昭)	上堂學云	『徑山禪寺語錄』(X70-12c)	
41	1265(梁山緣觀)	上堂學云	『乾明禪院語錄』(X70-3a)	
42	1313 (修山主)	上堂學云	『太平興國語錄』(X70-6c)	
43	1388(石霜楚圓)	上堂云	『華藏禪寺語錄』(X70-8c)	
44	1436 (文殊)	上堂學云	『大中祥符語錄』(X70-5b)	
45	1463(昔有婆子)	上堂學云	『乾明禪院語錄』(X70-2c)	단독

〈표15〉 『염송집』에 인용된 松源崇嶽의 착어 일람표⁴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1 (世尊)	上堂云	『송원록』上(X70-96b)	
2	2 (世尊)	頌古	「頌古」(X70-103c)	
3	6 (世尊)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5a)	
4	13 (世尊)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3a)	
5	32 (世尊)	頌古	「頌古」(X70-103c)	
6	64 (維摩)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8a)	
7	115 (六祖慧能)	頌古 上堂云	「頌古」(X70-104b) 『靈隱禪寺語錄』(X70-95b)	
8	121 (南嶽懷讓)	頌古	「頌古」(X70-103c)	
9	147 (清源行思)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8a)	
10	157 (馬祖道一)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4a)	
11	159 (馬祖道一)	秉拂學云	『秉拂普說』(X70-99b)	
12	168 (馬祖道一)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7a)	
13	179 (百丈懷海)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6c)	
14	182 (百丈懷海)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2b)	
15	190 (伏牛自在)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8b)	
16	195 (麻谷寶徹)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2a)	
17	206 (南泉普願)	上堂云	『光孝禪寺語錄』(X70-81c)	
18	211 (南泉普願)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6b)	
19	235 (南泉普願)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2b)	
20	240 (南泉普願)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7c)	
21	250 (盤山寶積)	頌古	「頌古」(X70-104c)	
22	268 (大梅法常)	頌古	「頌古」(X70-104a)	
23	276 (百丈惟政)	頌古	「頌古」(X70-104b)	
24	280 (中邑洪恩)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6c)	
25	312 (龐居士)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8c)	
26	324 (藥山惟儼)	頌古	「頌古」(X70-103c)	
27	353 (潮州大顛)	法語云	「示譙寺丞回庵居士」『法語』 (X70-103a)	
28	357 (滄山靈祐)	上堂云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4a) 『雲巖禪院語錄』(X70-93b)	

44) 『臨安府景德靈隱禪寺語錄』은 『靈隱禪寺語錄』, 『江陰軍君山報恩光孝禪寺語錄』은 『光孝禪寺語錄』, 『饒州薦福禪院語錄』은 『薦福禪院語錄』, 『平江府虎口山雲巖禪院語錄』은 『雲巖禪院語錄』, 『無爲軍冶父山實際禪院語錄』은 『實際禪院語錄』, 『明州香山智度禪院語錄』은 『智度禪院語錄』, 『開山顯親報慈禪寺語錄』은 『報慈禪寺語錄』, 『平江府陽山澂照禪院語錄』은 『澂照禪院語錄』으로 각각 줄여서 인용하였다.

29	360 (滄山靈祐)	頌古	『頌古』(X70-104c)	
30	396 (黃蘗希運)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9a)	
31	407 (趙州從諗)	上堂云	『智度禪院語錄』(X70-90b)	
32	411 (趙州從諗)	頌古	『頌古』(X70-104b)	
33	424 (趙州從諗)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3b)	
34	425 (趙州從諗)	上堂拈古	『雲巖禪院語錄』(X70-92b)	
35	430 (趙州從諗)	上堂云	『智度禪院語錄』(X70-90b)	
36	450 (趙州從諗)	上堂云	『智度禪院語錄』(X70-90b)	
37	463 (趙州從諗)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1c)	단독 착어
38	476 (趙州從諗)	頌古	『頌古』(X70-103c)	
39	492 (長沙景岑)	頌古	『偈頌』(X70-106c)	
40	506 (池州甘贄)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2c)	
41	511 (遂州良遂)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9c)	
42	512 (鎮州普化)	頌古	『頌古』(X70-104a)	
43	519 (鶴林素)	頌古	『頌古』(X70-104a)	
44	552 (金華俱胝)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5b)	
45	580 (仰山惠寂)	上堂舉云	『實際禪院語錄』(X70-83b)	
46	598 (香巖智閑)	上堂云	『智度禪院語錄』(X70-90a)	
47	614 (臨濟義玄)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5b)	
48	618 (臨濟義玄)	頌古	『頌古』(X70-104b)	
49	623 (臨濟義玄)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1a)	
50	624 (臨濟義玄)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3c)	
51	628 (臨濟義玄)	上堂舉云	『實際禪院語錄』(X70-83a)	
52	636(睦州道蹤)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5c)	
53	638(睦州道蹤)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7b)	
54	643(睦州道蹤)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3b)	
55	646(睦州道蹤)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7c)	
56	647(睦州道蹤)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2b)	
58	650(睦州道蹤)	頌古	『靈隱禪寺語錄』(X70-95b)	
59	661 (烏石靈觀)	頌古	『雲巖禪院語錄』(X70-93b)	
60	678 (杭州多福)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7c)	
61	686 (洞山良价)	頌古	『頌古』(X70-104b)	
62	688 (洞山良价)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6a)	
63	689 (洞山良价)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2c)	
64	695 (洞山良价)	拈古	『秉拂普說』(X70-100b)	
65	711 (夾山善會)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8b)	
66	751 (三聖慧然)	拈古	『雲巖禪院語錄』(X70-94b)	
		上堂云	『澗照禪院語錄』(X70-80a)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4c)	
67	761 (興化存獎)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7a)	
68	763 (灌溪志閑)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6b)	단독

69	825 (雪峯義存)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5a)	
70	854 (靈樹如敏)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7b)	
71	890 (曹山本寂)	上堂云	『智度禪院語錄』(X70-90a)	
72	918 (越州乾峯)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2c)	
73	1014 (雲門文偃)	上堂云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4b) 『薦福禪院語錄』(X70-87c)	
74	1015 (雲門文偃)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6b)	
75	1035 (雲門文偃)	頌古	「頌古」(X70-104a)	
76	1063 (雲門文偃)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8c)	
77	1066 (雲門文偃)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5b)	
78	1068 (雲門文偃)	頌古	「頌古」(X70-103c)	
79	1069 (雲門文偃)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1c)	
80	1078 (雲門文偃)	頌古 上堂云	「頌古」(X70-104b) 『薦福禪院語錄』(X70-89b)	
81	1148 (曹山慧霞)	上堂舉云	『實際禪院語錄』(X70-83c)	
82	1152 (南院慧顛)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3b)	
83	1164 (鎮州2世保壽)	上堂云	『光孝禪寺語錄』(X70-81b)	
84	1175 (同安常察)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2c)	
85	1200 (羅山道閑)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7a)	
86	1221 (巴陵顛鑑)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5a)	
87	1224 (香林澄遠)	頌古	「頌古」(X70-104c)	
88	1229 (洞山守初)	上堂云	『報慈禪寺語錄』(X70-99a)	
89	1233 (洞山守初)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6a)	
90	1236 (薦福承古)	頌古	「頌古」(X70-104c)	
91	1246 (風穴延昭)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2a)	
92	1248 (風穴延昭)	頌古	「偈頌」(X70-107b)	
93	1249 (風穴延昭)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8b)	
94	1274 (明招德謙)	頌古	『智度禪院語錄』(X70-90c)	
95	1281 (智門光祚)	頌古	「頌古」(X70-104b)	
96	1308 (修山主)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5b)	
97	1333 (文殊應真)	上堂	『雲巖禪院語錄』(X70-93c)	
98	1336 (汾陽善昭)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2b)	
99	1339 (汾陽善昭)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9a)	
100	1379 (瑯琊慧覺)	上堂云	『靈隱禪寺語錄』(X70-95c)	
101	1388 (石霜楚圓)	上堂云	『實際禪院語錄』(X70-84b)	
102	1389 (大愚守芝)	頌古	「頌古」(X70-104a)	
103	1403 (楊岐方會)	上堂云	『雲巖禪院語錄』(X70-93b)	
104	1429 (傅大士)	上堂云	『薦福禪院語錄』(X70-89b)	
105	1449 (布袋)	上堂云	『孝禪寺語錄』(X70-81b)	

■ 참고문헌

1. 자료

『禪門拈頌集』(『고려대장경』 46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한국불교전서 6책(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大正新脩大藏經(도쿄 : 大藏出版, 1928)

新撰大日本續藏經(도쿄 : (株)國書刊行會, 1986)

2. 논저류

稻葉岩吉, 「高麗宣光版禪林寶訓書後」, 『靑丘學叢』 8(1932)

大屋徳城, 「高麗朝の舊槩」(1941) ; 『佛教史の諸問題-大屋徳城著作選集第六卷-』
(도쿄: 國書刊行會, 1988), 138~140쪽.

黒田亮, 「宋代における大慧書の開版及び其の朝鮮刊本」 『朝鮮舊書考』(1940)

宇井伯壽, 「古尊宿語録について」, 『第二禪宗史研究』(도쿄 : 岩波書店, 1939), pp.
473~509.

柳田聖山, 「古尊宿語録考」, 『花園大學研究紀要』 2(교토 : 花園大學, 1971).

柳田聖山, 「宋版古尊宿語録調査報告」 『禪文化研究所研究紀要』 4(1972).

石井修道, 「眞淨克文の人と思想」,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4(1976).

椎名宏雄, 「『古尊宿語録』 正續諸本の系統」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13
(1981).

石井修道, 「虎丘紹隆と大慧宗杲」, 『佛教史學研究』 25-1(1982).

椎名宏雄, 「宋版『慈明四家録』とその周邊」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13(1982).

阿部肇一, 『増訂中國禪宗史の研究』(도쿄 : 研文出版, 1986).

西口芳男, 「黃龍慧南の臨濟宗轉向と泐潭懷澄 - 附録『宗門摭英集』の位置とその資
料的價值」, 『禪文化研究所紀要』 16(1990).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研究』(도쿄 : 大東出版社, 1993).

村井章介, 「渡來僧の世紀」, 『東アジア往還』(도쿄: 朝日新聞社, 1995).

椎名宏雄, 「『禪門拈頌集』の資料價值」 『印度學佛教學研究』 第51卷 第1號(2002).

조명제, 「고려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 『역사와 경계』
44(2002).

土屋太祐, 「眞淨克文の無事禪批判」, 『印度學佛教學研究』 51-1(2002).

榎本涉, 「日中・日朝僧侶往來年表(1127-1250)」, 『8-1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お
ける人・物・情報の交流(上)』(村井章介 編, 日本學術振興會 平成12年度~平成

- 1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 研究成果報告書, 2004).
- 土屋太祐, 「公案禪の成立に關する試論 -北宋臨濟宗の思想史-,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 18(2007).
- 조명제, 「一然의 선사상과 宋의 禪籍」, 『보조사상』 33(2010).
- 小川隆, 『續·語錄のことは『碧巖錄』と宋代の禪』(교토: (財)禪文化研究所, 2010).
-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보조사상』 34(2010).
- 小川隆, 『語錄の思想史』(도쿄, 岩波書店, 2011).
-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 『불교학보』 62(2012).
- 조명제, 「修禪社の『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한국사상사학』 42(2012).
- 조명제, 「修禪社の『禪門拈頌集』 편찬과 『宏智錄』」, 『불교학보』 63(2012).
- 조명제, 「修禪社の『禪門拈頌集』 편찬과 운문종의 어록」, 『역사와 경계』 90 (2014).
- 조명제, 「修禪社の『禪門拈頌集』 편찬과 임제종 황룡과의 어록」, 『불교학보』 68 (2014).
- 조명제, 「修禪社の『禪門拈頌集』 편찬과 대혜종고의 저작」, 『역사와 경계』 92 (2014).
- 조명제, 「혜심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염송집』」, 『보조사상』 42(2014).
- 佐藤秀孝, 「中世鎌倉の渡來僧」, 『東アジアのなかの建長寺』 村井章介 編(도쿄: 勉誠出版, 2014).
- 조명제, 「修禪社の『禪門拈頌集』 편찬과 원오극근의 저작」, 『한국불교학』 73 (2015).

Compilation of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by Suseonsa(修禪社) and Zen analects of Imje Yanggi-pa Sect(臨濟宗楊岐派)

Cho, Myung-Je*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is a Buddhist scripture compiled by Suseonsa and shows the originality of Korean Zen Buddhism. It also is a basic text that tells us how Suseonsa understood the Zen Buddhism of the Sung Dynasty and how it accepted the Zen of Discourse.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arranging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listed on 『SeonmunYeomsongjip』 on a whole scale, these could be known as below.

First, Most quoted Seon master in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is Jukam-Sagyu(144), Boryung-Inyong(128), SeungSeung-Seogong(112), Nnmwha-Jibyeong(105), Songwon-Sungak(105), Bulan-Chongwon(102), Sangbang-Ilik(99), Ojo-Beobyeon(49), Milam-Hnmgeol(45), Gongsu-Jongin(45), Bulgam-Heygeun(43), Mokam-Beobchung(30), BaekamSudan(16), HanamHeisung(12), Muyongjeongjun(6) etc.

Second, 『SeonmunYeomsongjip』 is the book Suseonsa focused on organizing academic zen after Kaifeng Era. Unlike previous studies, zen of Suseonsa is deeply related to understanding of Gonggan reviews. In other words, it is inappropriate to evaluate acceptance of zen meditation with given topic too highly.

Third,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of Seon masters of Yanggi-pa Sect listed on 『SeonmunYeomsongjip』 is mostly material which is not extant now. Because such material let reorganize Zen analects of Yanggi-pa Sect in South Song, it has a value as a

* Silla University / woongok@silla.ac.kr

material to study meditation school history in Song dynasty. Because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of Yanggi-pa Sect listed on 『SeonmunYeomsongjip』 edited by Suseonsa is basically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of A work on zen talks, it is far from essential character of Yanggi-pa Sect before A work on zen talks.

Key Words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Suseonsa(修禪社), Imje Yanggi-pa Sect(臨濟宗楊岐派), A work on zen talks(文字禪), GonganSeon(公案禪)

논문투고일 : 2015.2.11

논문심사일 : 2015.2.20

게재확정일 : 2015.3.9